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09년 2월

문학석사학위 논문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어서문학과

김승한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에 관한 연구

*Un estudio sobre los errores de pronunciación
en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200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 어 서 문 학 과

김 승 한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연음 오류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원 필

이 논문을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서 어 서 문 학 과

김 승 한

김승한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고 용 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기 택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원 필

200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 목 차.....	iii
그림목차.....	iv
<i>RESUMEN</i>	v
I. 서론	1
A.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B. 연구 내용 및 방법.....	2
II. 분절음의 음성체계	4
A. 음소 체계 대조분석.....	4
1. 모음체계 대조분석.....	4
2. 자음체계 대조 분석.....	9
B. 음성체계.....	14
1. 모음체계 대조분석.....	15
2. 자음체계 대조 분석.....	17
III. 초분절음	29
A. 음절.....	29
1. 음절의 구조.....	29
2. 음절의 경계.....	35
B. 강세.....	37
1. 스페인어 강세의 특징.....	37
2. 스페인어 강세의 규칙.....	38
C. 말토막.....	46
D. 연음.....	48

1. 동음연쇄.....	49
2. 접속사 y.....	51
3. 자음동화.....	52
IV. 발음 실태 조사 및 오류 분석.....	57
A. 조사 방법.....	57
B. 발음실태 조사 결과.....	60
1. 분절음의 오류.....	60
2. 초분절음의 오류.....	65
V. 결론.....	75
참고문헌.....	80
부 록.....	85

표 목 차

<표1>스페인어의 모음 자질 구분.....	4
<표2>영어의 모음 자질 구분.....	6
<표3>한국어의 모음 자질 구분.....	7
<표4>스페인어 자음의 음소체계.....	9
<표5>영어 자음의 음소체계.....	10
<표6>한국어 자음의 자음체계.....	11
<표7>스페인어 자음의 음성체계.....	18
<표8>분절음의 오류 내용 1(<i>Text1</i>).....	60
<표9>분절음의 오류 내용 2(<i>Text2</i>).....	61
<표10>오류율(<i>Text1</i>).....	63
<표11>오류율(<i>Text2</i>).....	63
<표12>강세 오류 내용.....	65
<표13>연음의 오류 1(<i>Text1</i>).....	67
<표14>연음의 오류 2(<i>Text2</i>).....	68
<표15>연쇄구조별 연음 오류 분석 1(<i>Text1</i>).....	69
<표16>연쇄구조별 연음 오류 분석 2(<i>Text2</i>).....	70
<표17>연쇄구조별 자음동화 오류 분석.....	72

그 립 목 차

<그림1>스페인어의 모음 삼각도.....	5
<그림2>영어 모음 사각도.....	7
<그림3>한국어 모음 사각도.....	8

Resumen

*Un estudio sobre los errores de pronunciación
en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Kim, Seung Han

Asesor: prof. Dr. Kim, Won-Pil

Departamento de Español,

Escuela de Posgrado de la Universidad Chosun

Estamos inmersos en plena era de la globalización, en una época en la que las diferentes comunidades viven en constante transformación y en la que los intercambios comerciales y culturales entre naciones aumentan sin cesar. Este proceso de globalización afecta de una manera particular a la enseñanza de la lengua extranjera dado el papel esencial que la lengua, como herramienta indispensable para la comunicación, ejerce en las relaciones internacionales. Así, se hace imprescindible la formación de personas capaces de desenvolverse de manera eficaz en este nuevo entorno global y que contribuyan a mejorar la posición que sus países ocupan en él.

En el caso de la lengua española los efectos de este nuevo escenario internacional adquieren, si cabe, mayor trascendencia al tratarse de uno de los medios de comunicación más importantes del mundo, tanto por volumen de hablantes como por su extensión territorial.

Actualmente el español es la tercera lengua más hablada del planeta, con más de 400 millones de hablantes nativos y es la primera lengua extranjera en los Estados Unidos.

Cada idioma tiene su propio sistema fónico y los detalles de su pronunciación son también únicos, de modo que podemos distinguir

claramente un sistema fonológico o fonético de una lengua a otra, por lo que cuando empezamos a aprender o enseñar un idioma extranjero, es necesaria la comparación de un sistema con otro y la observación de los sonidos homólogos o similares entre la lengua nativa y extranjera.

El objetivo de este trabajo es analizar los errores de pronunciación cometidos por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y proponer un método didáctico que ayude a eliminarlos o cuanto menos a disminuirlos.

Este estudio consta de seis capítulos.

En la introducción se presentan el objetivo, la necesidad, el contenido y el método de este estudio.

En el segundo capítulo hemos realizado una descripción de los sistemas fonológicos o fonéticos del español y el coreano y los hemos contrastado con el inglés. Al mismo tiempo hemos llevado a cabo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as características de sus sistemas vocálicos y consonánticos. Este análisis contrastivo de los elementos segmentales - fonemas, sílabas, grupos de intensidad y grupos fónicos - nos ayudará a detectar qué elementos lingüísticos propios de la lengua materna, en este caso la coreana, tienen una mayor tendencia a ser transferidos por los estudiantes cuando leen textos en español.

En el tercer capítulo hemos descrito los elementos suprasegmentales en la producción de sonidos (tono, acento de intensidad) y hemos realizado un análisis exhaustivo de la sinalefa y los fenómenos fonológicos del español y el coreano asociados a ésta, tales como: asimilación, reducción, sirrema, combinaciones vocálicas, vocales y consonantes homólogas, entre otros.

En el cuarto capítulo hemos analizado la pronunciación de un grupo de 20 estudiantes del departamento de español de la Universidad Chosun de Gwangju. La muestra incluye alumnos de segundo, tercer y cuarto año de carrera. Hemos excluido de la prueba a los alumnos de primer año por considerar que todavía están en una fase de su nivel de aprendizaje en la que, por lo general, no están capacitados para entender con exactitud el mensaje de lo que están leyendo. La prueba llevada a cabo ha consistido en la lectura por parte de cada uno de los estudiantes de una selección de dos textos. Estas lecturas han sido grabadas en audio con el fin de

proceder posteriormente a analizar las pronunciaciones y estudiar los errores. Se ha prestado especial atención en los fonemas propios del español y que no tienen correspondencia con el coreano y a los elementos suprasegmentales. En el comentario y análisis de los resultados, que detallaremos en este capítulo, destacaremos los errores sistemáticos que cometen la mayoría de los estudiantes en la pronunciación de los sonidos /e/ y /ī/, los frecuentes problemas en asimilaciones progresivas cuyo primer segmento acaba en /n/ (especialmente en las nasales bilabiales), en combinaciones vocálicas y las dificultades en el acento, en especial en los diptongos crecientes.

En el quinto capítulo hemos propuesto un método didáctico para la corrección de errores basándonos en el análisis de pronunciación de los estudiantes efectuado en el capítulo anterior. Vamos a proponer varios métodos específicos en función de la naturaleza del error a solucionar (sinalafa, asimilación, acento, suprasegmentales). En nuestra propuesta respetaremos la tendencia actual en la didáctica de la lingüística aplicada a la enseñanza de la lengua extranjera, en el perfeccionamiento de la pronunciación, que consiste en la utilización de técnicas para el adiestramiento de los elementos suprasegmentales, poniendo énfasis en elementos como el acento, ritmo, tono, etc..., siempre en un entorno donde se priorice el desarrollo de las destrezas comunicativas.

Por último llegamos a la conclusión, en la que hemos intentado demostrar que es posible la mejora de la pronunciación y por consiguiente la disminución de errores, mediante la aplicación de nuestro método didáctico.

I. 서론

A.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의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 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거에 비해 문자언어보다는 음성언어의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그 의미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발화 능력이 요구된다. 물론 모국어는 단순히 듣기를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발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어는 별도로 듣기능력을 개발함으로써 발화가 가능해지고 이 듣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발음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외국어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 생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언어를 완벽히 소화해 내기란 힘든 것이다. 이는 모국어의 음성체계가 이미 언어활동에 내재된 상태이기 때문에 학습자가 외국어의 새로운 음성체계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습득하고 있는 모국어의 음성체계와의 충돌과 간섭이 발생하는 데에 기인한다.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의 하나로 발음 및 듣기 영역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스페인어 교육이 문법 및 문어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스페인어의 소리에 대한 음성교육이 도외시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올바른 발음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모국어인 한국어의 음과 음운체계에 익숙해져있는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와 상이한 스페인어의 음성체계를 인식시키고 음을 변별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발화를 하는 원어민의 발음은 음소 중첩이 많아져서 동화 및 연음과 같은 음운 변화 현상을 일으켜 학습자들에게 발음 및 듣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망됨은 물론이다.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있어 발음 및 듣기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연음 현상이다. 소리 하나 하나가 홀로 발음될 때와는 달리 발음의 연쇄에서는 주변 소리의 영향을 받아 소리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

소리의 변화 정도는 주로 말의 속도에 좌우된다. 천천히 명료하게 발음하면 할수록 음소에 가까워지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강세가 없는 단어가 축약되어 불분명하게 되는 등의 경향이 커진다(Gimson 1981).

따라서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발음 및 듣기 능력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연습상의 음운현상들을 이해시키고 그에 따라 발음 연습을 한다면 스페인어 듣기의 어려움은 보다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논문은 스페인어 발음 및 청취상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연습현상과 더불어 분절음소 및 초분절음소에 대하여 오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수정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B.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발음 체계상의 차이를 대조하여,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가 스페인어 발음상에 오류를 많이 범하는 분절음소들의 종류와 내용뿐만 아니라 스페인어 발음 및 청취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초분절음에 대한 이론을 고찰한 후 별도로 제시하는 텍스트들에 대한 발음 실태를 녹취하고 분석함으로써 학습 현장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오류 현상의 내용과 원인을 파악하고 동시에 그러한 오류현상을 극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스페인어 발음 및 듣기 교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생들의 스페인어 발음에 있어서 모국어뿐만이 아니라, 제 1외국어인 영어에서 오히려 더 클지도 모를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목표언어인 스페인의 음소들을 함께 대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세 가지 언어에 대한 분절음의 음소 및 음성체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대조언어학은 언어학습 상의 오류현상을 과학적인 틀에서 연구함으로써, 학습자의 언어수행에 대한 본질을 통찰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목표언어의 학습과정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생들의 언어습득능력을 이해하여 교수기법을 개발하는데 기초가 된다. 각 언어는 물론 상이한 음

소·음성체계를 갖고 있으며, 그것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리고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러나 각 언어의 그러한 환경들을 모두 포함해서 고찰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여기서는 공시적으로 표준어만을 대상으로(스페인어의 경우는 스페인의 Madrid 지역을 기준으로)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은 고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음운체계 및 연음현상을 대조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설명하고, 본교 스페인어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텍스트를 제시하여 발음 능력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자 각각의 발음 내용은 MP3와 디지털 녹음기로 녹취하고 분석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분석 자료가 마련되면, 실질적인 오류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을 청각적으로 분석하되 스페인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하면서 그 오류의 내용 및 원인을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학생들에게 수정 대책을 제시하는바 가장 효율적인 발음 지도 방법은 어떤 것인지를 판단, 제시하고자 한다.

II. 분절음의 음성체계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은 모국어인 한국어 소리와 그 음운 체계에 습관화되어 있어서, 스페인어의 발음을 무의식적으로 한국어의 유사 음성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처럼 외국어 학습 시 모국어가 방해요인이 되는 현상을 언어 전이(transferencia) 또는 간섭현상(interferencia)이라고 한다. 이에 외국인으로서의 스페인어 발음을 보다 정확히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와 대조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어는 어느 정도 친숙하고 익숙한 외국어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스페인어를 학습함에 있어 영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영어도 참고로 대조 대상으로 넣어 분석하고자 한다.

A. 음소 체계 대조분석

1. 모음체계 대조분석

a. 스페인어

<표1> 스페인어의 모음 자질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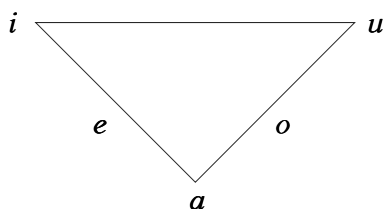
	i	e	a	o	u
고(高)모음	+				+
중(中)모음		+		+	
저(低)모음			+		
전설모음	+	+			
중설모음			+		
후설모음				+	+
원순모음				+	+

위의 <표1>에서 보는 것처럼 스페인어의 모음은 기본적으로 다섯 음소(a, e, i, o, u)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발음될 때 입이 어느 정도 열리는가, 즉 아래턱이 얼마나 내려가는가에 따라 고모음(i, u), 중모음(e, o), 저모음(a)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은 동시에 혀의 높낮이와도 비례관계가 이루어진다.

또한 이들은 조음 시 혀가 앞, 뒤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모음 i와 e는 혀가 앞쪽으로 구부러지면서 입천장 앞면 즉 경구개로 향하기 때문에 전설(前舌 anterior) 혹은 경구개(palatal)모음이라 하며, 반대로 모음 o와 u는 혀가 뒤로 물러나면서 입천장 뒷면 즉 연구개로 향하기 때문에 후설(後舌 posterior) 혹은 연구개(velar)모음이라 한다. a는 물론 가운데에서 나는 소리 (vocal central)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삼각형이 형성되므로 우리는 그것을 모음삼각도라고 한다.

<그림1> 스페인어 모음삼각도



그런데 이들 모음은 단지 혀의 높이와 전후 위치에 따라서만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분류를 기초로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다 입이 많이 벌어지는 모음 즉 저모음과 중모음은 공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어 energy가 크기 때문에 강모음(vocales fuertes)이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약모음(vocales débiles)이라고 한다. 만일 이들이 동시에 결합되면 강모음이 약모음을 흡수하여 2중모음으로서 한 음절을 이루게 된다. 한편, 앞에서 나는 소리 즉 전설모음은 그 소리 색깔이 날카롭다하여 예음(vocales agudas)이라고 하며, 반대로 뒤에서 나는 소리 즉 후설모음은 그 소리 색깔이 무겁다하여 중음(vocales graves)이라고 한다. 이

에 더불어 후설모음은 조음 시 입술이 동그랗게 되기 때문에 원순모음 (vocales redondas)이라고 한다. 따라서 전설모음(i, e)과 중설모음(a)은 평순모음(vocales no redondas 또는 vocales labiales)이 된다.

b. 영어

영어의 모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표2> 영어의 모음 자질 구분

	i	ɪ	e	ɛ	æ	ə	ʌ	a	ɑ	ɒ	ɔ	o	ʊ	u
고(高)모음	+	+	+									+	+	+
중(中)모음			+	+		+	+				+	+		
저(低)모음					+		+	+	+	+	+			
전설모음	+	+	+	+										
중설모음						+	+	+						
후설모음							+		+	+	+	+	+	
원순모음							+		+	+	+	+	+	+

영어는 모음이 매우 발달한 언어이다. 영어의 모음은 총 14개의 음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사다리꼴 모양이 된다. 이를 모음사각도라고 부른다.

<그림2> 영어 모음사각도

	진설	중설	후설
고	i		u
	I		ʊ
중	e	ə	o
	ɛ	ʌ	
저			ɔ
	æ		ɑ

영어의 모음은 스페인어에 비해서 저모음, 중모음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그리고 동시에 후설 및 중설모음도 다양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구조가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영어의 모음은 스페인어 모음 학습에 있어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방해가 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c. 한국어

한국어의 단모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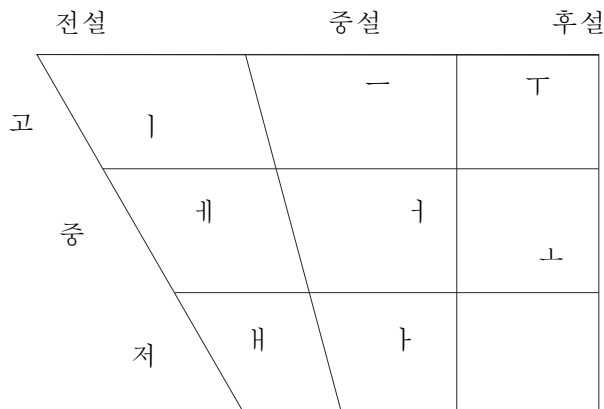
<표3> 한국어의 모음자질 구분¹⁾

	i	y	e	ø	ɛ	a	o	u	ɨ	ə
고(高)모음	+	+						+	+	
중(中)모음			+	+			+			+
저(低)모음					+	+				
전설모음	+	+	+	+	+					
중설모음						+			+	+
후설모음							+	+		
원순모음		+		+			+	+		

1) 이석주·이주행(1994),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8.

한국어의 모음은 단모음이 1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ε (ㅐ)와 e (ㅓ)의 구분이 없어지는 등 점차 단순화 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일부 모음은 단모음인지 복모음인지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²⁾ 한국어 모음에 대한 도형은 다음과 같다³⁾.

<그림3> 한국어 모음사각도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어보다 구조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보다 구조가 단순한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자들에게는 전혀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d. 대조결과

조음 시 혀의 높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스페인어가 고·중·저의 3단계로 뚜렷이 구분되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고단과 중단에 각각 /i/와 /ə/라는 모음을 추가로 갖고 있으며, 더욱이 중단의 /e/는 보다 저단의 /ɛ/와 대립현상을 갖고 있다. 한편 영어는 각단마다 상대적 높이가 다른 모음의 쌍을 갖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2) 기와 ㅐ를 단모음으로 분류하는 학자와 이중모음으로 분류하는 학자들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3) 이석주·이주행(1994), 『국어학개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7.

또한 조음시의 혀의 위치에 따라 구분해본다면, 스페인어가 가장 정확한 거리차이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y/와 /ø/가 전설·후설의 대립쌍 형태를 파괴시키고, 또한 중설모음/i/와 /ə/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영어는 중설모음/ə/와 /ʌ/를 제외하면 전설·후설의 정확한 대립쌍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입술모양에 따라서 대비시켜본다면, 스페인어가 자연스런 원순음 /o/와 /u/를 갖는데 반해서, 한국어는 그 외에도 전설 원순모음/y/와 /ø/를 갖고 있다. 한편 영어는 자연적 원순모음 /ɔ, o, ʊ, u/외에 /ʌ/와 /ɒ/를 추가로 갖고 있다.

2. 자음체계 대조 분석

a. 스페인어

스페인어 자음의 음소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4> 스페인어 자음의 음소체계⁴⁾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b			t	d							k	g
마찰음			f				θ		s			ʝ	x	
파찰음										c				
비음		m								n		ɲ		ŋ
설측음										l		ʎ		
단순진동음										r				
복합진동음										ř				

4) Antonio Quilis y Joseph Fernández(1975),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s*, Gredos, XXXI.

<표4>에서 보는 바처럼 스페인어 자음 음소는 파열음 /p, b, t, d, k g/, 마찰음 /f, θ, s, x, ʃ/, 파찰음 /c/, 비음 /m, n, ŋ/, 설측음 /l, ʎ/, 그리고 진동음 /r, r̄/ 등 총 19개로 구성되는데, 스페인어의 마찰음은 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 등의 주요 인접 로망스어와는 달리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없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즉 /v, z, ð, ʒ, dʒ/와 같은 음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 영어

영어 자음의 음소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5> 영어 자음의 음소체계⁵⁾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p	b							t	d			k	g		
마찰음			f	v			θ	ð	s	z	r	ʃ	ʒ			h
파찰음											c	ʝ				
비음		m								n				ŋ		
설측음										l				ʎ		
반자음		w										j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의 자음은 스페인어와는 달리 마찰음에서 유·무성의 대립현상을 갖고 있어 /f, v, θ, ð, s, z, ʃ, ʒ/ 등의 음소들을 갖고 있다. 이 중 /f/와 /θ/는 스페인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소리로서 한국어에

5) *ibid.*, XXXIII.

는 없는 소리들을 보완해 주고 있으며, 또한 유성과열음 /b, d, g/의 경우도 무성음의 성질을 갖는 한국어의 파열음 /ㅂ, ㄷ, ㄱ/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고 있다.

c. 한국어

한국어 자음의 음소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6> 한국어의 자음체계⁶⁾

		순 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평음	ㅂ (p)	(ㅂ b)	ㄷ (t)	(ㄷ d)			ㄱ (k)	(ㄱ g)		
	경음	ㅃ (p')		ㄸ (t')				ㄲ (k')			
	격음	ㅃ (p ^h)		ㄸ (t ^h)				ㅋ (k ^h)			
파찰음	평음					ㅈ (ç)					
	경음					ㅉ (ç')					
	격음					ㅊ (ç ^h)					
마찰음	평음			ㅅ (s)							
	경음			ㅆ (s')						ㅎ (h)	
비 음			ㅁ (m)		ㄴ (n)				ㅇ (ŋ)		
유 음					ㄹ (l r)						

6) 이석주 · 이주행(1994), *op. cit.*, 28.

한국어의 자음체계는 <표6>에서 보여주듯이 저해음들을 평음, 경음, 격음으로 나눈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경음이란 성대의 긴장이 수반되는 소리임을 뜻하고 격음이란 유기음, 즉 기식이 수반되는 소리임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어의 자음체계가 스페인어의 자음체계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은 파열음 중에 유성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복합진동음 /r/과 무성마찰음 /f, θ, x/, 그리고 구개비음 및 설측음 /ɲ, ʎ/이 없다는 사실이다.

d. 대조결과

세 언어들 간의 자음음소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음방식과 조음위치별로 그 특징을 대비해 볼 수가 있다.

(1) 조음방식에 있어서의 대비

Chomsky 이후로 자음은 저해음, 공명음 그리고 활음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반자음적인 성격을 갖는 활음은 제외하여 살펴보았다. 저해음이란 흔히 파열, 파찰, 마찰음을 가리키며 공명음이란 비음과 설측음을 가리킨다.

첫째로 파열음들을 대조해보면, 영어와 스페인어는 크게 유성여부에 따라서 대립되고 있으며 특히 영어는 무성음에 기식음이 더해진다는 사실과 스페인어 역시 무성음에 긴장경음(성문의 근육긴장)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국어는, 음소상으로는 파열음을 포함한 모든 저해음들이 무성음이며, 특히 음소 /p, t, k, č/는 각각 기식음과 성문음(경음)의 유·무 여하에 따라서 {/p, p', p^h/}, {/t, t', t^h/}, {/k, k', k^h/}, {/č, č', č^h/}로 대립된 조합을 갖고 있다. 이들 중 기식음과 성문음은 긴장음을 이룬다. 따라서 한국어의 파열음은 영어의 기식음과 스페인어의 긴장경음 자질을 고루 갖추고 있으나 유성음 자질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고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경우는 성문음이 없다는 것이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둘째로 마찰음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스페인어는 무성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긴장음이 있으나, 영어의 경우는 유성음의 대립이 있고 긴장음은 없

다. 마찰음이 언어들에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은 지속음 자질이 있다는 것이다. 파열음을 제외한 모든 언어음들은 한차례의 호흡이 허용되는 한, 즉 날숨 동안에 허파에 의해 내보내진 공기가 허용하는 한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 마찰음들 중에서 특히 주의할 것은 /x/인데, 이 스페인어의 특징적 음소는 영어의 기식음 /h/와 달리, 아주 좁은 경로로 공기가 배출된다는 것이다.

셋째로 비음들을 살펴보면, 한국어와 영어는 공통적으로 연구개음 /ŋ/을 갖고 있지만, 스페인어는 그런 음소는 없고, 대신 이음([ŋ])으로서만 존재한다. 어쨌든, 이 소리는 세 언어 모두에서 이중이나 어말에만 나타날 뿐 어두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끝으로, 설측음의 경우는 모든 언어가 유성음이며 지속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어는 음소/l/만이 있고 [r]은 이음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하여, 영어는 /l/와/r/을 모두 갖되, 접촉이 아닌 접근하는 소리라는 특징이 있다. 한편 스페인어의 경우는 /l/와//r/ 뿐만이 아니라, 각각 구개음 /ʎ/와 복합진동음 /r̄/을 갖는데, 특히 이 소리는 긴장음이 된다. 한국인이 스페인어 및 기타 Romance어 등을 학습하고 또한 발화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소리가 아닌가 한다.

(2) 조음위치에 있어서의 대비

언어들의 음소체계를 조음위치상으로 대비시켜보면, 앞에서 본 바처럼 대부분의 음소들이 동일하지만, 몇 가지의 음소들은 특수성을 갖는다. 즉 양순음 /p, b, m/와 연구개음/k, g, ŋ/, 그리고 치조음 /n, l ,r/은 모든 언어에 공통적이지만, 기타 치조음, 치음, 치간음 및 구개음은 언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갖는 것이다.

- 파찰음/ç/(/j/도 포함)은 영어와 스페인어가 공통적으로 경구개음인데 비해서 한국어는 경구개음과 치음으로 혼동된다.
- 마찰음/s/의 경우, 영어에서는 치음이고 한국어에서는 치음 내지 치조음으

로 혼동되는데 반해서, 스페인어는 완전한 치조음으로 규정된다.

- 파열음/t/은 한국어와 스페인어가 공통적으로 치음인데 반해, 영어에서는 치조음이 된다.
- 마찰음/θ/(/ð/) 는 영어에 전적으로 있으며, 스페인어에는 무성음소만이 있다. 그러나 후자가 완전히 치간음을 갖는데 반해서, 전자는 치간일치음이라는 불명확한 조음점을 갖는다.
- 마찰음/x/은 영어와 스페인어에서 공통적으로 순치음으로서 존재한다. 단 영어에서는 그 유성대립음 /v/이 존재하나 스페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이런 음소가 전혀 없다.
- 스페인어에는 세 언어들안에서 볼 때 독창적인 음소/ʎ/와 /ɲ/을 경구개음으로서, 그리고 /x/를 연구개음으로서 갖고 있다.

B. 음성 체계

한 음소는 그 고유의 소리뿐만이 아니라, 음맥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소리들을 갖게 된다. 즉 음소구조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자질(영어의 성문음과 자음성절음, 스페인어의 음운상실 및 기식음화 구개무성마찰음의 생성 등)이 형성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음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음소체계에서 보인 세 언어들(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사이의 음운구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에서 스페인어와 한국어 및 영어의 자음에 관한 음소체계를 대조해 본 결과, 스페인어의 자음들 중 한국어에 없는 소리들은 /f, θ, x, b, d, g, ʎ, ɲ, i/이며, 이들 중 영어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f, θ, b, d, g/이므로 결국 한국인들에게 생소한 스페인어 소리들은 /x, ʎ, ɲ, i/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자 대응관계를 우선 염두에 두고 청각적으로 구분하는 추상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써, 조음방식과 위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조와 분석이 필요하다. 더욱이 스페인어와 한국어 내에서 발생하는 각 음소의 변이음들이 원활한 발음의 요건이 될뿐더러 양 언어의

소리 대조에서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만큼, 본 장에서는 양 언어의 변이음을 중심으로 하는 음성대조를 행하고, 그로써 한국인들이 스페인어 발음을 학습하는데 있어 주의해야 할 것과 또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영어의 변이음 현상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아무리 영어를 오랫동안 학습하고 접촉했다 할지라도, 외국어인 영어의 변이음을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발음에 익숙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그것이 스페인어의 음성체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1. 모음체계 대조 분석

a. 스페인어

스페인어의 모음은 다음과 같은 이음을 갖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e/와 /o/는 음성학적인 개·폐의 구별, 즉 보다 저단과 고단의 음 구별이 있음이 중시되며, 각각의 저단모음소 /ɛ/와 /ɔ/는 역사적으로 /je/, /we/와 같은 2중모음 음소로 발전해 온 바, 공식적 측면에서의 [ɛ]와 /je/, [ɔ]와 /we/의 대비는 음성·음운학적인 구분의 의미가 있음을 미리 강조해 둔다.

모음 음소/e/와 /o/는 다음과 같은 위치에서 각각 열린 변이음 [ɛ]와 [ɔ]를 갖는다.

1) [r](rr)와 인접해 있을 때

perro[pɛ̞ro], reloj[r̞ɛ̞loɰ], torre[t̞ɔ̞re], roca[r̞ɔ̞ka]

2) [x] 앞에 위치할 때

México[mɛ̞xiko], Texas[tɛ̞xas], teja[tɛ̞xa], hoja[ɔ̞xa],

3) 하강 이중모음(diptongo decreciente)을 형성할 때
seis[se̞js], veinte[bɛ̞jnte], peine[pe̞jne], boina[bɔ̞jna]

4) 모든 구속음절의 경우
son[sɔn], los buenos[lɔs buenos], español[espaɲɔl]

그러나 /e/의 경우 구속음절 중에서도 [d, m, s, n, θ]로 끝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닫힌 [e]로 발화된다는 점에서 /o/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el[el], cárcel[kárœel], ser[ser], comer[komer], lección[lɛkɔ̞jɔn]
en[en], orden[ɔrden], enrique[en̄rike], es[es], escuela[eskwela],
rapidez[r̄apideθ], rigidez[r̄jxjdeθ], Edmundo[edmundo],

b. 한국어

한국어의 10개 단모음(單母音)은 그 앞에 오는 자음의 종류에 따라 변이음을 가진다. 예를 들어, 같은 모음 ‘이’의 경우라도 그 앞에 어떤 자음이 오느냐에 따라 그 조음 위치가 약간 앞 또는 뒤로 움직이게 된다. 이처럼 모음의 변이음들이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경우는 없다. 그런 점에서 자음의 변이음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음운론적인 설명에서는 모음에 대한 변이음들을 잘 다루지 않는다.

이처럼 한국어의 모음들은 그 음소에 대한 변이음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채 음소 고유의 소리가 유지되는데, 다만 중설모음/ə/만이 변이음[ʌ]를 갖는 것이다(예; [ə:l̄da] ‘얼다’, [ʌr̄t̄m] ‘어름’, [ʌm̄ʌni] ‘어머니’ 등).

모음에 대해서는, 더구나 스페인어 모음이 단순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의 설명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만 줄인다.

c. 대조결과

모음의 경우 한국어는 많은 음소를 가지면서 변이음이 적는데 반해 스페인어의 경우는 변이음들을 상대적으로 보다 더 갖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중 입의 열림 정도가 극단적으로 대치되는 저모음(/a/)이나 고모음(/i, u/)의 경우는 그 변이음들의 미세한 차이를 청각적으로 느끼고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분석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모음 /e/와 /o/의 경우는 스페인어 자체의 조음적, 청각적 기능에서 확연히 구분되는 변이음([e, ε, o, ɔ])이 있을뿐더러, 이탈리아어 등 이웃언어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음운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절대로 사소히 간과할 수 없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음교육 측면에서 볼 때 이 소리들은 이미 한국어와 영어에 내포된 것들로서, 발음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2. 자음체계의 대조 분석

a. 스페인어

스페인어의 자음에 대한 음성체계를 그 조음방식과 조음위치 및 유·무성 관계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7> 스페인어 자음의 음성체계7)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간음		치경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무성	유성
파열음	p	b			t	d							k	g
마찰음		β	f				θ	ð	s	ʃ	ʝ		x	ɣ
파찰음											c	ʧ		
비음		m		ɱ		ɲ		ɲ		n		ɳ		ŋ
설측음					l		ɭ		l		ʎ			
단순진동음									r					
복합진동음									ɾ					

(1) 파열음

파열음 /p, b, t, d, k, g/은 조음위치에 따라 양순음과 치음, 그리고 연구개음으로 나뉘는데, 이들은 각각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구별된다. 이들은 음성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변이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무성음의 그것들은 선택적인데 반해, 유성음의 그것들은 필수적인 만큼 간과할 수 없다. 유성과 파열음 (/b, d, g/)의 변이음은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각각 마찰음화 한다.

[β](유성양순마찰음)는 음소/b/가 휴지 혹은 비음(nasal)다음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 올 때 항상 [β]로 실현된다.

- /b/ → [β] /V____V/ ; lobo, caballo, libertad, la boca,
- /유음__유음/; alba, habla, el bote,

7) Antonio Quilis y Joseph Fernández(1975), *op. cit.* .XXXII.

[ð](유성치음마찰음)는 음소/d/가 휴지, 비음, 설측음(lateral) 다음에 위치할 때 [ð]로 실현된다.

/d/ → [ð] /V_____V/ ; lado, cada, boda,

/유음__유음/; el dedo, falda, madre,

[ɣ](유성연구개마찰음)는 음소/g/가 휴지, 비음 다음을 제외한 나머지 위치에 올 때 [ɣ]로 실현된다.

· /g/ → [ɣ] /V_____V/ ; una guapa, mago, vega,

/유음__유음/; el gordo, alguien, reglas,

(2) 마찰음

① 무성순치음 [f]

무성 순치음 /f/은 영어의 그것과 거의 상응하는 소리로써,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그 이해에는 별 어려운 문제가 없다. 다만 영어와는 달리 스페인어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유성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무성치간음 [θ]

무성 치간음 [θ] 역시 영어의 그것과 거의 상응하는 소리로써, 한국인 학습자들이 그 소리의 조음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스페인어 학습자들이 그것을 치경음 [s]과 혼동하여 쓰고 있는데, 아마도 청각적으로 우리말의 /ㅅ/ 소리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페인어의 방언적 요소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③무성치경음 [s]

또한 스페인어 무성마찰음 가운데 주의하여 살펴볼 소리로서 [s]소리가 있다. 스페인어의 [s]음은 그것에 대응되는 영어의 [s]소리와 함께 치경음이지만 청각적으로 상응하지 않는데, 이는 같은 조음위치에서도 또 다른 요소에 의해 소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s]음은 지속성을 갖는 마찰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인 음을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간투사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며 독립적인 음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인이나 일본인에게서 가끔씩 발견되는 음절 말이나 어말의 /-s/의 음절화 현상 ([dosi], [sɛ̃isi], [misimosi])은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리는 스페인어의 무성음 /s/가 뒤에 유성음과 연결되면 유성음화하여 변이음 [s̃]을 갖게된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앞의 음절화 현상과 더불어 아마도 완화 내지는 약화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어의 유성마찰음소 /z/와는 절대로 구별을 해야 한다. 즉 스페인어의 변이음은 절대적인 유성음이 아니고 유성음으로 부분동화한 소리인 것이다.

/s/ → [s̃] /____ 유성음/ ; desde, mismo, los libros,

④무성연구개음 [x]

무엇보다도 한국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이며 두드러진 마찰음은 [x]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x/음은 무성마찰음으로써 연구개음이다. 한국인들은 이 소리를 때로는 영어의 성문 기식음 /h/과, 또 때로는 한국어의 /ㅋ/ 소리와 혼동하기도 하는데, 이는 스페인어의 [x]음이 지역과 개인에 따라 마찰의 정도가 다르게 조음되는 현상에서 비롯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음소체계에 그와 상응하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용과 식별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x/의 경우에도 변이음

([h])이 존재하지만, 이는 방언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여기서는 별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⑤ 유성경구개음 [j]

스페인어의 마찰음소 중 유일한 유성음인 [j]은 구개음으로써, 반자음 및 활음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영어의 [j]와 유사한 소리이다. 다만 스페인어의 /j/음은 영어에 비해 보다 단한 소리이며, 또한 보다 긴장된 소리이다.

⑥ 기타 변이음 [β], [δ], [ɣ]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성과열음의 변이음으로서 마찰음화한 소리들 ([β], [δ], [ɣ])이 있다. 이는 유성과열음(/b, d, g/)이, 특히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이는 경우, 자연스럽게 그 파열자음의 막음 (폐쇄)단계가 생략되어, 파열의 성격을 잃고 마찰의 성격으로 조음방식이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스페인어를 읽고 말할 때마다 항상 경험할 정도로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3) 파찰음

스페인어의 음소들 가운데 파찰음은 /c/ 뿐이다. 무성파찰음 /c/은 그에 대응되는 영어의 파찰음 [c]과 함께 구개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영어의 그것이 보다 앞에서, 즉 치경 가까이에서 조음되는데 비해 스페인어의 그것은 그 조음이 보다 뒤에서 이루어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성마찰음 [j]이 강하게 발음되어 생기는 변이음으로서 유성파찰음 [ʝ]이 있는데, 이는 [j]가 어두에서만 아니라 자음 /n/와 /l/ 뒤에 위치할 때도 형성된다.

/j/ → [ʝ] /n, l _____ / ; cónyyuge, el yugo, un hielo, ...

(4) 비음

스페인어의 비음은 양순음/m/, 치경음 /n/, 그리고 구개음 /ɲ/의 세가지의 음소를 갖고 있으며, 이중 /ɲ/은 치경음 /n/보다 조음위치가 뒤로 이동하면서 설배면이 넓게 입천장과 접촉하여 조음되는 단독자음으로서 2차 조음이 이루어지는 /nj-/와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 즉 España [espaɲa]는 [espanja]로 발음될 수 없다.

그 외에도 우리는 치경음 /n/이 인접자음, 특히 후행 자음의 조음위치에 따라서 동화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n/ → [m] / ____양순음 (p, b, m)/; En Pamplona, invierno,
- [ɲ] / ____순치음 (f)/; enfoque, San Fermín, un fruto, ...
- [ɲ] / ____치음 (t, d)/; diente, donde, un doctor, ...
- [ɲ] / ____치간음 (θ)/; once, lanzar, un cerdo, ...
- [ɲ] / ____구개음 (c)/; concha, ponche, un chico, ...
- [ɲ] / ____연구개음 (k, g, x)/; blanco, en cada, un jugador, ...

(5) 설측음

설측음에는 치경음 /l/과 구개음 /ʎ/이 있다. 치경음 /l/은 혀끝이 치경에 접촉하면서 혀의 양쪽으로 배출되는 소리인데, 영어의 /l/이 그 위치에 따라 조음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에 비해([l], [ɫ]), 스페인어는 그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음성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구개음 /ʎ/ 역시 앞의 /n/의 경우처럼 조음위치가 치경 /l/에서 뒤로 이동하면서 설배면이 보다 넓게 입천장에 접촉하여 혀의 양옆으로 기류가 배출되면서 조음되는 단독자음이며, 이 역시 활음적 성격의 2차 조음이 없다는 점에서 /lj-/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설측음이 마찰음으로 발음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는데(calle [kaʎel]), 이는 하나의 이완 현상으로써 그 발음의 전통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만, 스페인의 광범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치경설측음 /l/의 변이음에는 다음과 같이 조음위치에 동화하는 것들이 있다.

/l/ → [l̥] /_____치음 (t, d)/ ; allto, ballde, el toro, cultltura,

[l̥] /_____치간음 (θ)/ ; dullce, allzar, callzado,

(6) 진동음

진동음 또는 탄설음이란 혀끝이 치경에 닿았다가 떨어지는 모습이 마치 두 드리하는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진동의 방법에 따라 단순진동음과 복합진동음으로 구별하는데, 단순진동음 /r/은 한국어의 탄설음 /ㄹ/ (/r/)과 별다르지 않아서 그 발음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복합진동음 /r̄/의 경우는 우리말 체계에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매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Guitart은 단순진동음과 복합진동음을 구별하는 자질로서 PSI (presión subglotal incrementada), 즉 후두하부의 압력의 증감 여부를 설정하고, 후두하부의 압력이 보다 강해지면 복합진동음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단순진동음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 한국어

한 음소는 항상 같은 소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리 실현된다. 이처럼 한 음소이지만 환경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소리들을 변이음 또는 이음이라고 한다. 한 음소를 이루는 변이음들은 출현하는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다. 이처럼 서로 나타나는 환경이 겹치지 않는 것을 상보적 분포⁸⁾를 이룬다고 한다.

8)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란 음성적으로 유사한 두 개 이상의 음이 동일한 환경에서 결코 분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이러한 유사음은 동일한 음소에 속하게 되며, 이러한 변이음을 위치변이음, 조건변이음이라고 한다.

유사성이 많은 서로 다른 소리 A, B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면 이 두 소리는 별개의 음소라기보다는 한 음소의 변이음일 가능성이 크다.

예) 감기/kamgi/

(1) /ㅂ, ㅃ, ㅅ/의 변이음

① 어두

어두에서는 성대가 울리지 않고 파열이 일어나는 변이음이 된다.

예) 바보, 다리미, 삿갓

② 음절말

음절 말에서는 성대의 울림이 없으며 불파음(파열이 되지 않는음)이 된다.

예) 압, 안, 악

③ 유성음 사이

유성음 사이에서는 성대의 울림이 있으며 파열이 일어나는 변이음이 된다.

예) 바보, 가다, 감기

(2) /ㄴ, ㄸ/의 변이음

/ㄴ/과 /ㄸ/의 변이음은 후행하는 모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뉜다.

[p]: 바다 /p/ → [p]/#____
[b]: 나비 /p/ → [b]/V__V
[ḡ]: 밥 /p/ → [ḡ]/____#
<김무림(1992), *op. cit.* 44.>

① ‘이, y-계 이중모음’ 앞

ㄴ은 경구개 비음이 된다. 예) 갑니다⁹⁾, 시냇, 녀석

ㅅ은 경구개 마찰음이 된다. 예) 갑시다, 하셔서

② 그 외의 환경

ㄴ은 치조 비음이 된다. 예) 나라, 노루

ㅅ은 치조 마찰음이 된다. 예) 소라, 사람

(3) /ㄹ/의 변이음

① /ㄹ/의 변이음은 탄설음과 설측음으로 나누어진다.

음절 말이나 ‘ㄹ’ 뒤에서 설측음이 된다. 예) 날, 물론

‘ㄹ’ 뒤를 제외한 음절 초에서 탄설음이 된다. 예) 라디오, 노루

이것을 스페인어와 비교해본다면 탄설음 ㄹ은 [r]로 대응시킬 수 있고, 설측음 ㄹ은 [l]와 대응시켜 볼 수 있다.

9) ‘ㄴ’ 뒤에 ‘ㅣ’모음이 오면 구개음화현상이 일어나 자연히 [ɲ]이 된다. 그런 언뜻 보기엔 같은 소리로 여겨지는 ‘보니’와 ‘무늬’는 서로 다른 소리이다.

‘보니’ /poni/ → [poɲi]

‘무늬’ /munii/ → [munɲi]

다시 말해서 ‘보니’는 n구개음화가 이루어졌고, ‘무늬’는 n구개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i탈락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ibid.*, 110-111.]

② 그 외의 변이음

탄설음 계열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ㄹ’ 뒤에 ‘이’ 또는 ‘야, 여, 요, 유’ 등과 같은 y-계 이중모음이 오면 조음 위치가 더 뒤에서 나온다.

예) 라디오 - 내려요, 일요일

(4) /ㅎ/의 변이음

/ㅎ/의 변이음은 후행하는 모음의 성질(조음 위치나 방법)에 크게 좌우된다.

① 양순 마찰음; ‘ㅌ’와 ‘기’의 앞에 오는 경우

예) 휘다, 후진

② 경구개 마찰음; ‘ㅣ’와 ‘기’ 계열의 이중모음’ 앞에 오는 경우

예) 힘, 효도

③ 연구개 마찰음; ‘ㅡ’ 앞에 오는 경우

예) 흙, 흐르다

④ 후두 마찰음; 그 외의 모음 앞에 오는 경우

예) 하늘, 호랑이

c. 대조결과

스페인어의 자음은 한국어 및 영어와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질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우선 마찰음에서 스페인어는 유·무성의 대립이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어와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마찰음이 3개([s, s', h])에 불과 하므로 그에 비교하여 스페인어 마찰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

다. 아무튼 한국인 학습자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마찰음은 /f, θ, x/이며, 그중 영어에도 없는 /x/는 매우 인상적이고도 어려운 발음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h/(ㅎ)과 같은 소리로 인지하여 실제로 성문기식음(ㅎ)으로 발음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의 변이음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에도 [x]가 있음을 알 수 있다(‘흙’을 강하게 발음할 때 절로 나오는 연구개음). 따라서 /x/(무성연구개마찰음)이 가장 어려운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 θ/(무성치간마찰음)이 가장 어려운 자음이 될 것이며, 실로 한국 학생들 중 C와 Z를 [θ]로 발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과열음의 경우, 스페인어는 6개(/p, b, t, d, k, g/)가 있는데 반해, 한국어는 9개가 있다. 즉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아니라 각 조음위치 별로 평음/경음/격음의 3가지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국어에 경음이 있으므로 스페인어의 무성과열음을 발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어의 과열음 음소에는 유성음이 없어서, 즉 /b, d, ɣ/은 유성음이 아니고 무성음이기 때문에 /p, t, k/와 혼동할 수 있는 여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구[kagu]의 경우 앞의 ‘ㄱ’과 뒤의 ‘ㄱ’은 소리가 다른데, 앞소리는 무성음이고 뒷소리는 유성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이 스페인어의 /b, d, g/를 발음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은 물론 한국어에 유성음의 음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음맥에 따른 변이음(β, ð, γ)을 익히고 연습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과열음이 주로 모음 사이에서 마찰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유음과 비음을 함께 공명음이라 한다. 공명음의 경우는 발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어의 비음에는 /m, n, ŋ/이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m, n, ñ/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한국인들은 /n/가 새로운 음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유음의 경우는 보다 민감해 진다. 즉 한국어는 /r/하나에 불과하지만, 스페인어는 /l, ʎ, r, ʝ/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스페인어의 설측음과 진동음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구강 구조상 /r/의 발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는 개별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일이다. 하지만 /l/와 /r/, 즉 설측음과 진동음을 구분하는 것은 체계적인 설명과 훈련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설측음은 혀를 치경에 대고 가운데 통로를 막은 채 공기를 혀의 가장자리로 내보내는 소리인데 반해, 진동음은 혀를 치경에 댔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 즉 설탄음이다. 한국인들이 설측음과 진동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예로 'claro', 'libro'의 발음을 들 수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kraro], [ribro]라고 발음한다. 그러나 'general'을 [xenerar]로 발음한다든지, 'hola'와 'hora'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은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의 설측음이나 2중자음의 설측음을 진동음으로 혼동하는 것에 대비하여 별도로 강조하고 연습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음 역시 /ʎ/가 낫선 음소로 인식될 수 있다. 유음인 /ʎ/와 비음인/n/가 치경음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도 모음/i/나 반자음/j/와 어울리면 스페인어의 그것과 비슷한 소리가 될 수 있다.(올려, 알려, 열려, 안녕, 아뇨, 했냐 등) 따라서 그런 점에 주목하여 별도로 훈련하면 설측음의 연습에 대단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I. 초분절음

외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음소 및 음성 체계, 즉 분절음 요소와 더불어 강세, 억양, 리듬과 같은 초분절음 요소를 정확히 구분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스페인어의 강세와 리듬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스페인어는 강세와 리듬에 의해서 이미가 크게 달라지는데 강세와 리듬에 익숙하지 못한 한국인 학습자들은 발화의 인지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리듬은 주로 강세에 의해 주도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강세를 중심으로 고찰해본다.

A. 음절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 실태를 조사해 보면 스페인어의 강세에 대한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들에 있어서 스페인어의 발화와 인지에 많은 어려움을 일으킨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강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을 고찰하는 것은 꼭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다. 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절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음절규칙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절의 구조

음절이란 한 번에 발화할 수 있는 최소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모음이 중심이 된다. 즉, 모음이 하나이면 한 음절이 되고, 두 개이면 두 음절, 그 이상이면 그 수만큼 될 것이다.

$$V_n = S_n \quad (S=sílaba)$$

그 이유는 모음이란 생리적으로 볼 때 구강에서 그 어느 것도 거치지 않고 공기가 그대로 배출되어 나오는 소리로서, 그 경우 구강 내 조음 공간이 상대적으로 매

우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주파수가 매우 큰, 즉 힘이 매우 강한 소리가 되고, 따라서 청각적으로는 명확한 음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음은 스스로 발화되지 못하고 모음에 의탁하여 나는 소리가 되는데 반해, 모음은 스스로 발화가 가능한 소리이고, 그 결과로 모음은 스스로 음절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n(1음절)

algo(2음절)

alumno(3음절)

extranjero (4음절)

universidad (5음절)

universidades(6음절)

a. 단모음 음절과 복모음 음절

(1) 단모음 음절 구조

음절의 구조는 자음과 모음의 배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V

모음 단독으로 음절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α 전치사), e 접속사), j (접속사), α 접속사), l 접속사),

$a\acute{e}$ -re-o

② CV

de, lo, la, le, mi, ti, tu, su, se, si,

pa-ra, ó-pe-ra, pe-ro, Es-pa-ña,

③ CCV

a-ma-ble, li-bro, chi-cle, pa-dre, ma-dre, dra-ma, dro-ga, ten-drá,
fra-se, fre-no, cua-tro, o-tro, glo-bo, gra-cia, gra- má-ti-ca, lo-gro,

⑤ VC

el, en, un, al, ab-, ad-, in-,
ir, ac-to, al-gu-no, le-es, rí-es, es-cri-bo, en-fo-que, ad-qui-rir,

⑥ VCC

abs-, obs-, abs-trac-to, obs-tá-cu-lo, ads-cri-to,

⑦ CVC

por, del, don, voz, mis, nos, los, las, les, mes, par-que, mar-car,
po-nen, Va-len-cia, mar-zo, ciu-dad, mo-nu-men-tos, que-mar,
du-ran-te, to-dos, nor-te, sur, fin, gen-te, o-ri-gen, des-de,
so-nar, an-dar, can-tar, to-mar, do-ler, de-cir, ha-cer, te-ner,

⑧ CCVC

plan, tres, tren, ex-tran-je-ro, li-bros, hom-bres, trom-pa,

⑨ CVCC

cons-tan-te, mons-truo, subs-tra-to,

⑩ CCVCC

trans-por-te, trans-ver-so,

(2) 복모음 음절 구조

스페인어 음절은 항상 단모음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스페인어의 단모음(vocales simples)은 구강의 개폐 정도(abertura)에 따라 입이 비교적 많이 벌어지는 소리, 즉 저모음(a, e, o)과 입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 소리, 즉 고모음(i, u)으로 구분되는데, 입이 비교적 많이 벌어지는 저모음은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강모음이 되고, 입이 거의 벌어지지 않는 소리, 즉 고모음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여 약모음이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강모음과 약모음이 함께 결합되는 경우, 강모음은 약모음을 병합하여 복모음(vocales compuestas)을 구성하는 바, 이중모음(diptongos)과 삼중모음(triptongos)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복모음들은 그 안에 구성된 각각의 단모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묶어 발음한다. 즉 한 음절을 구성하는 것이다. 한 음절을 구성하는 복모음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ia/, /ie/, /io/, /ua/, /ue/, /uo/, /iu/, /ui/
/ai/, /ei/, /oi/, /au/, /eu/, /ou/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중모음은 강모음과 약모음 중 어느 것이 앞에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한다. 즉, 약모음이 앞서 위치하는 경우는 약+강의 구조, 즉 상승세를 취하므로 ‘상승이중모음(diptongos crecientes)’이라 한다. 반대로 강모음이 앞서는 경우는 ‘하강이중모음(diptongos decrecientes)’이라 한다.

① 상승이중모음 구조

상승이중모음의 경우는 약모음끼리의 결합, 즉 /iu/와 /ui/를 포함하고 있다. 상승이중모음의 경우 앞에 위치한 약모음 /i/와 /u/는 그 소리가 약화되어 자음에 가까운 기능을 하게 되므로 각각 반자음(/j/와 /w/)이 된다.

pía-no[pja-no], *ría*-da[rja-da], *día*-rio[dja-rjo],
sie-te[sje-te], *mie*-do[mje-do], *nie*-bla[nje-bla],

vio-lín[bjo-lin], *Rio*-ja[r̄jo-xa], *pío*-jo[pjo-xo],
bua-ro[bwa-r̄o], *a-gua*[a-gwa], *gua*-pa[gwa-pa],
due-ño[dwe-ño], *cue*-va[kwe-ba], *fue*-go[fwe-gol],
an-ti-gua[an-ti-gwo], *a-ve-ri-gua*[a-be-ri-gwo],
muy[mwi], *cui-da-do*[kwi-da-do], *rui-na*[r̄wi-na],
ciu-dad[øju-dad], *viu-da*[bju-da], *piu-co*[pju-ko]

② 하강이중모음 구조

하강이중모음의 경우는 강모음 뒤에 위치한 약모음이 자음보다는 모음에 가까운 기능을 하게 되므로 각각 반모음(i, u)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특기할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그 앞의 강모음도 영향을 받아 보다 열리는 소리로 변화된다는 것이다([ɛ], [ɔ]).

pai-sa-je[pai-sa-xe], *aire*[ai-re], *bai-le*[bai-le],
pau-ta[pau-ta], *cau-sa*[kau-sa], *gau-cho*[gau-tʃo],
ley[lei], *rey*[r̄ei], *pei-ne*[pei-ne], *deu-da*[dɛu-da],
hoy[ɔi], *soy*[soi], *es-toy*[es-tɔi], *boi-na*[bɔi-na],

③ 삼중모음 구조

삼중모음이란 문자 그대로 모음 세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음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것은 스페인어의 삼중모음은 당연히 강모음 하나에 약모음 두개가 함께 결합하되, 강모음이 중심, 즉 가운데에 위치하고 약모음은 주변, 즉 양쪽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때 강모음 앞에 위치하는 약모음은 반자음의 성격을 띠고, 강모음 뒤에 위치하는 약모음은 반모음의 성격을 띠게 된다.

es-tu-díais[es-tu-djais], *es-tu-díeis*[es-tu-djeis], *buey*[bweɪ]
conti-nuáis[kon-ti-nwais], *conti-nuéis*[kon-ti-nweis],
a-ve-ri-guáis[a-be-ri-gwais], *Pa-ra-guaɲ*[pa-ra-gwaiɲ]

b. 개방음절(자유음절)과 폐쇄음절(구속음절)

우리는 위에서 스페인어의 음절이 음절 내의 모음 구조에 따라서, 즉 모음이 단 모음인지 복모음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복모음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음절은 그 모음 뒤에 자음이 따라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즉 종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조를 구분하기도 한다. 만일 그 모음 뒤에 자음이 결합되어 음절을 마감한다면 '폐쇄음절(sílaba cerrada)' 혹은 '구속음절(sílaba trabada)'이라고 한다. 반대로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지 않고 모음으로 끝난다면, 다시 말해서 종성이 없는 경우에는 '개방음절(sílaba abierta)' 혹은 '자유음절(sílaba libre)'이라고 한다.

(1) 개방음절의 예

a, de, le, lo, la, me, te, se, mi, tu, su, pa-ra, rei-no, u-ni-do,
pe-ro, pe-rro, ca-ba-llo, va-ca, lo-bo, ga-lli-na, a-ni-mal,
o-dia, gra-cia, dis-tan-cia, via-duc-to, cie-go, cal-cio, co-mió,
ter-cio, an-ti-gua, sua-ve, con-ti-nua, lue-go, llue-ve, rue-da,
con-ti-nuo, ar-duo, pri-me-ro, se-gun-do, duo-dé-ci-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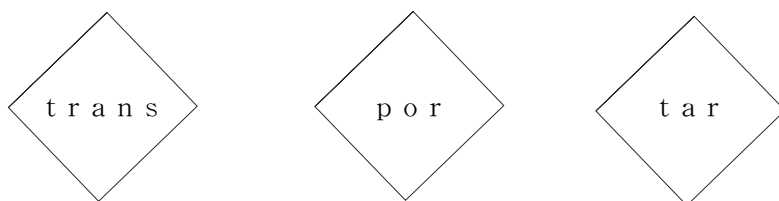
(2) 폐쇄음절의 예

guíar, bien, quien, Dios, guión, diez, dual, buen, juez, seis,
hier-ba, pier-de, dien-te, huís, huís-teís, triun-fo, quios-co,
ac-tuar, puer-to, muer-to, cuán-to, veín-te, Aus-tra-lia,

2. 음절의 경계

스페인어의 음절 구조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음절 내 모음 및 자음의 구조와 배치에 관한 것이다. 이에 아울러 음절에 대한 고찰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음절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즉, 이웃하는 음절과 음절 사이의 경계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onio Quilis y Joseph Fernández(1975)에 의하면 음절의 경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위 단어는 모음 세 개가 각각 음절의 핵(núcleo)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결국 세 개의 음절을 구성하고 있다. 첫째 음절은 CCVCC의 구조를, 그리고 둘째와 셋째 음절은 CVC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와 셋째 음절의 경우, 중심 모음 양쪽으로 자음이 단순히 하나씩만 결합되어 있음으로써 우리는 일견에 초성-중성-종성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각 종성의 뒤에 다른 음절의 초성이 따라옴을 짐작하게 된다. 그러나 음절의 경계를 이처럼 외형적으로 음소배열만을 살펴 그 경계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도 단순한 것이며, 이와 같이 초성-중성-종성의 구조를 완전하게 갖지 않는 경우에는 판단에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aestro의 경우 ma-es-tro인지, 아니면 maes-tro인지, 혹은 ma-est-ro인지를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¹⁰⁾

따라서 위에 제시된 단어(transportar)의 첫음절인 trans의 경우, 왜 그것이 한 음절을 형성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자음인 무성치조마찰음(/s/)이 어떻게 그 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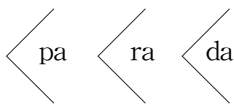
10) 이 경우 스페인어의 음절분해 규칙에 의하면 3음절 즉 ma-es-tro가 된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주로 maes-tro, 즉 2음절로 발음한다. 이는 아마도 라틴어의 이중모음 ae가 후에 점차 단모음으로 축약된 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예: 영어의 master나 프랑스어의 maître) 이와 같이 음절이 통합되는 현상을 'sinéresis'라 한다.

따르는 음절(por)의 첫 자음인 무성양순파열음(/p/) 앞에서 서로 경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음절의 초성은 이중자음 tr-로 구성되어 있고 종성은 -ns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간에 모음 -a-가 놓여있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성은 파열음과 유음으로, 그리고 종성은 모음으로, 또한 종성은 비음과 마찰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음소는 각기 나름대로 입이 열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물론 모음은 입이 많이 벌어지는 소리이며, 자음은 그에 비해 매우 닫힌 소리가 된다. 그중에서도 공명음인 유음과 비음은 상대적으로 열린 소리인 반면에 장애음인 마찰음과 파열음은 닫힌 소리이다.¹¹⁾ 따라서 초성 tr-은 점점 더 열린 소리로 진행되다가 종성 -a-에서 극대화된 후, 나중에는 점점 닫힌 소리로 이행하여 결국 종성 -ns의 경우 끝소리인 마찰음 -s에서 폐쇄상태에 이른다. 이는 다시 말해서 점차 열리다가 완전히 개방된 이후에 점차 닫히다 결국에는 거의 완전히 닫힘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둘째음절과 셋째음절에서도 같은 원리로 진행된다. 따라서 음절경계란 가장 닫힌 소리끼리 이웃하여 형성된 골짜기(vall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음절의 경계가 항상 가장 닫힌 소리끼리 만나는 골짜기라고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음절이 종성 자음을 갖는, 즉 폐쇄음절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첫음절에 종성자음이 있으되 둘째음절에 초성자음이 없다면, 이 경우는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골짜기를 형성하기 보다는 낭떠러지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절의 경계는 각 음절이 지니는 음소들 중 입이 열리는 정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된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11) 일반 자모음의 음향 강도에 대하여 Lausberg는 Saussure나 Jespersen과는 약간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음은 다섯 등급으로(1-5등급), 반모음은 제 6등급으로, 그리고 모음은 한 범주(제7등급) 내에서 세 단계(a-c)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기할 사항은 무성마찰음을 파열음과 구별하여 전자를 후자보다 높은 위치에 두었다는 사실이다. [Heinrich Lausberg(1976), *Lingüística Románica, -Fonética*. Tomo I., tr. J. Pérez Riesgo y Pascual Rodríguez, Gredos, 137.]

입이 가장 작게 열리는 소리로 끝나거나 시작하는 곳, 혹은 그런 소리들이 만나는 점이 곧 음절의 경계가 되며, 그 경계의 앞이나 뒤에는 자음이 분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VC, CV).

음절 경계에 자음이 하나만 있다면 그것은 마땅히 그 뒤의 모음에 연결되어 초성을 이룰 것이다(예: u-no, lo-bo, ma-ña-na). 그리고 만일 자음이 두 개가 있다면 그 두 자음은 대부분 앞, 뒤로 나뉘어 각각 다른 음절에 속하게 된다(예: lar-go, tar-de, an-tes, des-pués 등).

그러나 두 자음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파열음 혹은 무성마찰음 f와 유음(l, r)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자음군의 형태를 이중자음이라 하는데, 그것은 유음이 모음에 가까운 성질을 갖는 자음이라서 그 앞 자음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자음이 나뉘어 발음되기 보다는 한 음절에 통합되어 발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중자음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pl, pr, bl, br, (tl), tr, (dl)¹²⁾, dr, kl, kr, gl, gr, fl, fr,

B. 강세

1. 스페인어 강세의 특징

한국어는 원칙적으로 강세가 없다¹³⁾. 그러나 음운체계가 비교적 약한 스페인어의 경우는 강세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강세 음절의 위치가 달라짐에 따

12) tl의 경우 반도 스페인어는 이중자음으로 발음하지 않는데 반해 중남미스페인어는 아마도 원주민어에서 자주 쓰이는 관계로 이중자음으로 발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어의 자음 t와 d는 치음 파열음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아마도 치음(t, d)은 설측음(l)과 이중자음을 구성하는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음 중에서도 진동음(r)과의 결합은 별 무리가 없다.

13) 국어 단어에는 강세가 없다고들 한다. 그러나 국어 발화 단위에서 강조가 필요할 때 특정 음절이나 단어에 강세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대조강세(contrasting stress)라 한다.

- i) 철수가 영화를 막대기로 때렸다. (다만 사실을 기술함)
- ii) 철수가 영화를 막대기로 때렸다. (행위의 주체를 강조함)
- iii) 철수가 영화를 막대기로 때렸다. (행위의 대상을 강조함)
- iv) 철수가 영화를 막대기로 때렸다. (행위의 도구를 강조함)
- v) 철수가 영화를 막대기로 때렸다. (행위의 종류를 강조함)

[이석주·이주행(1994), *op. cit.* 50-51.]

라 의미와 기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¹⁴⁾

예) término-명사()

termino-terminar 동사의 직설법현재 1인칭 단수형

terminó-terminar 동사의 직설법과거 3인칭 단수형

스페인어의 강세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강도(intensidad)이다. 즉 강조하는 음절에 물리적으로 강한 힘을 부여함으로써 그 위치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는 고저(tono)이다. 이는 그야말로 높낮이로서 음악적 멜로디와 같은 것인데, 강세가 주어지는 음절은 다른 음절에 비해 높은 음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강세의 마지막 요소는 음장(duración)이다. 이것은 비록 스페인어의 절대적 음운 기능은 아니지만 특히 중남미스페인어에서 음조(tono)와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스페인어 강세의 규칙

a. 스페인어 강세의 유형

스페인어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강세 유형이 있다.

(1) agudo(oxítono);

단어의 끝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① 규칙

14) La relativa pobreza del sistema fonológico español puede quedar compensada con creces merced a la gran movilidad y expresividad de nuestro acento. Por contraposición al francés, que posee una extraordinaria rigidez en cuanto a la posición de la sílaba acentuada, El español se caracteriza por su flexibilidad, dando origen a importantes cambios significativos la situación de la sílaba acentuada.

<Antonio Quilis y Joseph Fernández(1975), *op. cit.*, p. 157>

-d: ciudad, verdad, calidad, humedad
 -l: español, nacional, coronal, esencial, sucursal.
 -r: hablar, comer, escribir, vivir, contar, leer
 -z: andaluz, nariz, nuez, juez,
 -x reloj, balaj, cambuj, erraj:
 -c: coñac, biztec,
 -y¹⁵⁾: Uruguay, Paraguay, virrey

② 불규칙

-n: nación, estación, pensión, común, alemán, andén,
 -s: Galdós, cortés, inglés, francés, japonés, Adiós, país,
 -í: aquí, ahí, allí, jabalí, rubí, israelí, marroquí, comí, salí,
 -ú: bambú, menú,
 -á: papá, sofá, hablará, comerá, vivirá, dirá, quizá, Ojalá,
 -é: café, hablaré, hablé, conté,
 -ó: habló, comió, oyó, leyó, chacó, chapó,

(2) llano(paroxítono);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① 규칙

agudo, llano, libro, hermana, hermosa, princesa, española,
 cuchara, cucharita, guerra, guerrilla, mujercita, panecillo,
 hablo, hablas, habla, hablamos, hablan, hablando, hablado,
 hable, hablemos, hablen, hablaba, hablabas, hablabais, hablaban,
 hablara, hablaras, hablarais, hablaran, hablase, hablaseis, hablasen,
 examen, origen, Carmen, crisis, tesis, lunes, jueves, viernes,

15) 어말의 -y를 자음으로 볼 것인가 모음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그 경우 왜 스페인어에서는 왜 끝 음절에 강세를 두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원필(2002a)를 참고하기 바람.

② 불규칙

carácter, azúcar, superávit, álbum, ángel,
hablaría, hablarías, hablaríais, hablarían,

(3) esdrújulo(proparoxítono);

끝에서 세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término, artículo, indígena, lingüística, régimen, ácido, rápido,
oxítono, terapéutica, romántico, acuático, triángulo, termómetro,
hablábamos, habláramos, hablaríamos, partíamos, partiríamos

(4) superproparoxítono;

매우 드문 악센트 현상으로 한 어휘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복합적인 형태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명령문의 동사나 현재분사형의 뒤에 비강세 대명사(목적대명사 및 재귀대명사)가 결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estudiándolo, diciéndomelo, comiéndoselo, dígamelo,

b. 스페인어 어휘강세의 규칙

(1) 규칙 악센트

①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들

현대 스페인어의 악센트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여, 모음으로 끝나는 낱말들의 경우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진다.

libro [líβro], padre [pá-dre], hermano [er-má-no],
escuela [es-kwé-la], extranjero [eks-traɲ-xé-ro],

② 자음으로 끝나는 낱말들

자음으로 끝나는 낱말들의 경우는 끝음절에 강세를 둔다.

español [es-pa-**nól**], regular [reɣu**lár**], verdad [ber**dá**d],
coñac [ko**ñák**], nariz [na**rí**θ], reloj [re**lój**],

③ 자음 n, s로 끝나는 낱말들의 경우

자음들 중 -n과 -s로 끝나는 낱말들의 경우는 다른 일반 자음들의 경우에 비해 예외적으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를 둔다.

examen [ek-sá-**men**], crimen [krí-**men**], tesis [té-**sis**], libros [lí-**βros**],
hablan [á-**βlan**], hablaban [a-**βlá-βan**], ha-bla-mos [a-**βlá-mos**],

스페인어에서 끝이 -n과 -s로 끝나는 말들 중에는 동사변화형이나 명사 및 형용사의 복수형이 많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불규칙 악센트

지금까지 살펴 본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를 불규칙 악센트라고 하며 불규칙 악센트에 대해서는 강세부호(tilde)를 첨가한다. 끝에서 세 번째 또는 그 이상의 음절에 악센트가 있는 경우는 모두가 불규칙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불규칙 악센트의 범주 속에는 당연히 외래어들이 포함되는데, 이미 자국어 체계 속에 적용한 것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근래에 들어와 외국어나 차용어로서 쓰이고 있는 것들은 그 어원에 맞춰 발음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상 외래어의 경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estación, composición, acción, inglés, francés, japonés, israelí,
habláis, hablarán, hablé, hablé, partí, partió, partís, partiréis,

árbol, estándar, huésped, lápiz, álbum, carácter, ángel, María,
régimen, regímenes, exámenes, crímenes, término, huérfano,

c. 문장 강세

우리는 강세라 하면 어휘에 주어지는 강세, 즉 악센트(acento)라고 생각하고 문장차원에서 일어나는 강세를 간과하기가 쉽다. 물론 강세란 어휘 차원에서 주로 일어난다. 그러나 문장이 어휘의 연쇄임을 돌아보면 그 각각의 단어의 강세가 문장 차원에서 조합되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강약(혹은 고저)의 형식 또는 규칙을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은 형식 또는 규칙을 우리는 문장 강세라 이른다.

다음은 문장 강세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다. 문장 강세 규칙은 일반적으로 문장 내의 성분 즉 어휘의 통사적 범주(품사적 기능)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강세를 수반하는 성분

① 명사

명사는 그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강세를 부여한다. 즉, 그것이 구체명사든 추상명사든, 보통명사든 물질명사든, 그리고 개체명사든 집합명사든 예외 없이 모두 강세가 부여되는 것이다. 명사는 그 수가 한정 없이 많고, 구분이 어렵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예시하지 않는다.

② 대명사

대명사 중 주격인칭대명사, 전치사격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소유대명사, 의문대명사 등은 강세를 수반한다(pronombres tónicos). 그러나 목적대명사와 재귀대명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강세가 없다(pronombres átonos).

No me lo ha dicho náda a mí.

A ellos les gusta la naturaleza.

No es mío. Es súyo.

③ 의문사

의문사는 그 품사를 막론하고 모두 강세가 주어진다. 그러나 관계사나 접속사가 의문사의 형태를 그대로 빌려 쓰되 강세부호를 삭제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문장 내에서 강세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문사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quién(es); 대명사,

qué, cuál(es), cuánto(a)(s); 대명사, 형용사,

cuándo, dónde, cómo; 부사

④ 동사

명사와 더불어 문장의 핵을 이루는 동사는 조동사든 본동사든 당연히 강세를 가진다. 단, 조동사는 본동사에 비해 그 강도가 보다 약한 것은 물론이다. 이런 강세현상은 우설법(perífrasi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No me hà dicho nada.

La persona que las come và a tener un año de suerte.

⑤ 형용사

형용사 중 품질형용사는 예외 없이 모두 강조되어 강세가 부여된다. 그러나 한정형용사는 상황에 따라 강도가 약해지거나 혹은 강세가 소멸된다. 즉, 지시형용사는 비교적 약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유형용사는 명사의 앞, 뒤 중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강세의 여부가 정해진다.

한편 수형용사는 그것이 기수든 서수든 일반적으로 강세가 주어진다. 하지

만 수사 중에서도 복합수사의 경우는 그 요소 모두에 강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요소, 즉 뒷부분에만 강세를 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복합수사의 앞부분은 강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En *èse* día la gente toma *dóce* uvas.

¿Cuál es *tu* nombre?

Es la culpa *túya*.

La noche del treinta y *úno* de diciembre se llama Nochevieja.

⑥ 부사

부사는 보통 때나 장소, 방법 등을 나타내는 고유부사와 형용사에서 파생하는 양태부사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며 항상 강세를 갖는다. 단, 양태부사 중 어미 *-mente*가 결합된 부사어는 스페인어에서 유일하게 강세가 두 개인 낱말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Ellos corren muy rápidamente.

Hable más despácio, por favor.

Pase por aquí.

(2) 강세를 수반하지 않는 성분

① 관사

관사는 명사구의 주변 요소로서 단순 지적 내지 단순 수식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강세를 주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관사는 부정형용사 내지는 수사의 기능을 내포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강세가 부여될 수 있다.

Había llegado *el* día de *la* final. *Ún* jugador del partido se lastimó la rodilla.

② 기능어

기능어란 문장에서 의미적으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단지 통사적으로 보조적인 수단이 되는 성분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전치사와 접속사, 혹은 관계사를 들 수가 있다. 이들은 그 주변적인 기능 때문에 당연히 강조의 필요성이 적어 강세를 부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한국인 학생들은 평소 문법 학습에서 관용어에 부속된 전치사에 관심을 많이 쏟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관심은 심리적으로 강조를 유발하게 되는 바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분을 강하게 읽게 되는데, 이 때문에 학습자들이 전치사에 강세를 두는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복문을 접하면 순간 당황하면서 해독에 자신감을 잃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능적으로 그 연결부분, 즉 접속사나 관계사 부분에서 문장을 분리 분석하려는 의도를 갖게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역시 기능어에 강세를 부여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본다.

기능어는 그 어떤 경우에도 강세를 주지 않고 힘없이 읽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부분을 빠르게 읽어 지나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히려 청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기능어를 약하고 빠르게 발음하고 또 그것을 듣는데 익숙하도록 연습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3) 구별 악센트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악센트이면서도 강세부호를 첨가하고 있는데, 이는 형태는 같으나 그 의미나 기능이 다른 낱말들을 서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며, 이때 강세부호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 음성구문론 상에서 강세가 있는 성분들, 즉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등이다. 따라서 주로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 등의 접사들이나 정관사, 그리고 소유형용사 등의 부가적이거나 부수적인 성분들은 강세부호가 표시되지 않는다.

él (주격인칭대명사; he) / el (정관사; 남성단수형),

tú (주격인칭대명사; you)/ tu (소유형용사),

mí(전치사격 인칭대명사) / mi(소유형용사),
té (명사; tea) / te (목적대명사; to you),
qué (의문사) / que (접속사, 관계사),

C. 말토막(*sirrema*)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발화상의 연음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말토막이라고 하는 음성 구문론적인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토막이란 문법적, 음성학적, 의미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 단위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구를 이루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하나의 명사를 핵으로 전치사, 관사, 형용사 등이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룬다든지, 하나의 동사를 핵으로 동사군, 즉 복합시제(haber+P.P.)나 우설법(perífrasis)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보어나 부사와 함께 결합하여 동사구를 이루는 것 등이 그 주된 내용이 된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관계라든지, 전치사나 접속사, 관계사 등의 후행요소 결합으로 하나의 어군 즉, 말토막을 이룸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말토막 성립의 규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명사구와 형용사구

명사를 중심으로 관사 혹은 형용사가 결합되는 경우

i) 관사 + 명사

un libro,
el honor,,,

ii) (관사) + 명사 + 형용사/형용사구

La mañana *del siete de julio*,
el perro *blanco*,
el perro *de Luis*,

② 동사구

동사를 중심으로 관련 요소가 결합되는 경우들로 각각 대표적인 예문 하나씩만 제시해보기로 한다.

i) 동사 + 부사

Pasaron bien los más destacados.

ii) (목적대명사 +) 동사 + 목적어/목적어절

A María no *le gusta* café.

iii) 채귀동사

David *se sentó* en el banco.

iv) 조동사 + 본동사

Había llegado el día de la final.

v) 동사구(perífrasis)

Ya no *podía seguir jugando*.

③ 전치사구

전치사에 이끌려 형성되는 구문으로 주로 부사어의 기능을 한다.

En España hay muchas fiestas *durante el año*.
Entre el quince y diecinueve de marzo ponen unos grandes
monumentos de madera.

En el mes de julio empiezan las fiestas de San Fermín.

④ 접속사구문

접속사에 연결된 구문(혹은 절)을 말한다.

Dicen *que* la persona *que* las come va a tener un año de suerte.

Antes de que salieran de la casa, la abuelita llamó a David.

D. 연음

우리가 보통 발화 속도 이상으로 말을 할 때 한 단어씩 끊어서 발화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들 휴지(pausa) 없이 발화하기 때문에, 연음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예를 들면;

las salas [las:álas] / las alas [lasálas]
en hojas [enóxas] / enojas [enóxas],
no volverá a hacerlo [nóβolβerá:θérlo]/
no volverá a serlo [nóβolβerá:sérlo]

이처럼 앞의 단어의 끝 자음과 뒤에 오는 단어의 첫 모음이 연결 되거나, 유사한 모음과 모음, 자음과 자음이 이어지면서 둘 중 하나가 탈락하고 마치 하나의 자음처럼 발음되는 것이다. 즉 연음이란 단어를 연속적으로 붙여서 읽을 때 앞 단어의 끝 부분과 그 다음 단어의 앞부분이 연결되어 발음되는 것으로, 말할 때 자연스럽게 들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의 발음상의 음운 변화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스페인어의 발음 및 청취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연음에 대한 음운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발음지도를 하는 것은 스페인어의 듣기뿐만 아니라 정확한 발화를 함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1. 동음 연쇄

a. 두 동음 모음의 연속

1) 한 단어의 끝 음소와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첫 음소가 강모음(vocal tónica o acentuada) 강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papá ha venido

2) 연속된 두 모음이 약모음(vocal átona o inacentuada)일 때 그 약모음을 짧게 발음한다.

a ninguna atiende

la abundancia da arrogancia

3) 인접한 두 동음 강모음 혹은 두 동음 약모음이 있을 때 그 모음 중에 하나가 강세 단어(정관사, 전치사, 접속사 등)에 속해 있을 때 그 모음을 짧게 발음한다.

para arriba y para abajo.

pon el postre en la mesa.

4) 두 동음 모음에서 약모음 다음에 강모음이 올 때 모음을 길게 발음한다.

en cada tierra su uso

está en lo hondo

muere cansado de ella

5) 두 동음 모음에서 강모음 다음에 약모음이 위치 할 때 모음을 짧게 발음한다.

bien sé el pan que quieres

Juan está alegre

b. 두 동음 자음의 연속

1) 두 무성 치경 마찰음 [s] 가 인접할 때 [s] 하나만 발음한다.

las sombras

las salas

2) 두 유성 치경 비음[n] 가 만났을 때 하나의 [n]만 발음한다.

con nada

un novio

estaban nerviosos

* 이 두 동음 자음의 연속은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3) 앞 단어 끝에 위치하는 진동음과 다음에 오는 단어의 처음에 오는 복합 진동음이 인접할 때 복합 진동음으로 발음한다.

humor racional

es un cantar regional

4) 두 경구개 설측음[l]가 인접할 때 이 설측음을 길게 발음한다.

el loro

el lado

5) 두 치음 [d]가 연속할 때 일반적으로 유성 설치 마찰음[ð]으로 발음한다.

Ciudad del Cabo

El Mundo de Carlos III

2. 접속사 y

접속사 y는 다음과 같은 음성 맥락에서 그 발음이 변화한다.

1) y가 두 자음 사이에 있을 때 경구개 전설모음[i](vocal anterior palatal)으로 실현된다.

Juan y Carlos
coser y cortar

2) y가 자음과 모음사이에 놓일 때 반자음[j]으로 실현된다. 또한 악센트의 결여로 인하여 다음에 오는 모음과 결합한다.

buscar y elegir
jugar y estudiar

3) y가 모음과 자음 사이에 위치할 때 반모음[ɨ]으로 실현되고 악센트의 결여로 앞모음과 결합한다.

jugó y comió
Mario y Luis

4) 모음과 모음 사이에 있을 때 반자음[j]으로 실현되고 뒤에 오는 모음과 결합한다.

miro y estudio

3. 자음동화

동화란 어떤 음이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 그 소리와 유사해 지거나 같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조음의 편의를 위한다는 언어경제 원칙에 일치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Un vaso 라는 단어는 천천히 발음하면[ún báso]가 된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 [úm báso]가 된다. 즉 치경 비음인 [n]이 뒤에 오는 양순 폐쇄음에 동화되어 양순 비음인[m]로 되는 것이다.

동화는 영향을 주는 음을 주체라고 부르고, 반대로 영향을 받아 변하게 되는 음을 객체라고 부를 때, 주체와 객체 사이의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A, B, 두 음의 연쇄가 있을 때 A가 B에 영향을 주는 동화를 순행동화(asimilación progresiva)라고 한다. 다시 말해 A가 주체이고 B가 객체인 동화현상이다. 이때 B는 A의 영향을 받아 A와 같아지거나 비슷해진다. 순행동화에 반대되는 것은 역행동화(asimilación regresiva)로서 A, B의 두음이 있을 때 B가 주체이고 A가 객체인 동화 현상을 말한다. 이때 A는 B를 닮아서 같아지거나 비슷해진다. 그리고 A, B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를 상호동화(asimilación recíproca)라고 한다. 스페인어에서는 역행동화가 일반적이다.

또한 자음동화에는 앞뒤 형태의 인접형태에 따른 직접동화(asimilación directa o contígua)와 간접동화(asimilación indirecta o distinta)가 있는데 물론 직접동화가 지배적이다.

끝으로 동화된 정도에 따라 완전동화(asimilación completa)와 부분동화(asimilación paricial)로 나눌 수 있는데 완전동화란 영향을 받는 음이 영향을 주는 음에 완전히 동화되어 똑같은 음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거의 같은 음이나 또는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는 자질을 갖는 음이 되는 경우를 부분 동화라 한다.

여기서는 동화를 조음위치에 의한 동화와 조음방법에 의한 동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a. 조음 위치의 동화

스페인어 자음 중에서 조음 위치 동화를 일으키는 자음은 비음/n/와 유음 /l/ 이다.

(1) 비음/n/

비음/n/은 뒤따르는 자음에 따라 그 조음 위치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동화된다.

① 양순음 /p/, /b/, /m/의 앞; 유성양순비음 [m]으로 변한다.

en vano [em báno], un poco [um póko]

② 순치음 /f/의 앞; 유성순치비음[m̃]으로 변한다.

enfoque [emfóke], un fruto [umfrúto]

③ 치음 /t/, /d/의 앞; 유성치음비음[n̪]으로 변한다.

donde dónde, un diente [un djénte]

④ 치간음 /θ/의 앞; 유성치간비음[n̪]으로 변한다.

once [ón̪e], lanza [lan̪e], un cerdo [un œrdo]

⑤ 경구개음 /ʎ/의 앞; 유성경구개비음[n̪]으로 변한다.

concha [kón̪ʎa], un chico [un̪ʎíko]

⑦ 연구개음 /k/, /g/, /x/의 앞; 유성연구개비음[n̪]으로 변한다.

blanco [blán̪ko], hongo [ón̪go], en general [en xenéral]

(2) 유음 /l/

유음/l/은 뒤따르는 자음에 따라 그 조음 위치가 동화된다. 하지만 비음에 비해 한정된 위치에만 실현된다.

① 치음 /t/, /d/의 앞; 유성설치측음[l]으로 변한다.

alto [ált^o], el dedo [el^odé^o]

② 치간음 /θ/의 앞; 유성치간측음[l̪]으로 변한다.

dulce [dúl̪e], calzado [kal̪á^o]

b. 조음방식의 동화

(1) 유성음화

유성음화는 조음위치의 변화 없이 성대진동의 유·무에만 의한 변화로서, 이웃하는 유성음(sonido sonoro)의 영향으로 무성음(sonido sordo)이 유성음으로 되는 동화작용이다.

스페인어의 유성음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무성마찰음 /s/를 들 수 있다. 무성마찰음/s/는 스페인어의 자음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자음으로서 음절말음으로서의 결합성이 탁월하다. 스페인어의 마찰음에 유·무성 대립이 없다는 사실은 다른 로망스어나 인도유럽어에 비해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소/s/, /θ/는 후속자음이 유성음인 경우 그에 동화되어 유성음화(□)된다.

hallazgo, dosl libros

unosg grandesl monumentosl de madera

todosl losl días

(2) 무성음화

무성음화는 조음위치의 변화 없이 성대진동의 유·무에만 의한 변화로서 유성음인 음소가 무성자음 앞에서 무성음화 되는 동화현상이다.

스페인어의 무성음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유성마찰음 /b/를 들 수 있다. 음소 /b/가 음소/t/앞에 위치하면 그에 동화되어 무성음화/p/된다.

obtener [optener], subterráneo. [supterráneo]

(3) 마찰음화

스페인어의 파열음 중 유성음들/b, d, g/은 주로 모음사이 또는 모음과 유음사이에서 약화하여 마찰음이 된다. 이는 자연스런 조음방식의 동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파열음 주변의 소리들이 열린 소리면, 자연히 따라 열림으로써 파열음의 성질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① 음소/b/

음소/b/가 모음사이에 올 때는 유성양순마찰음[β]으로 변한다.

lobo [lóβo], caballo [kaβáʎo], había[aβía]
hierba [jérβa], habla [áβla] , libro[líβro]

② 음소/d/

음소/d/가 휴지, 비음, 설측음, 모음사이에 올 때 유성치음마찰음[ð]로 실현된다.

diecinueve de marzo, en ese día, por la mañana del siete de julio,

③ 음소/g/

음소/g/가 휴지, 비음 다음에 올 경우를 제외하곤 유성연구개마찰음[ɣ]로 실현된다.

agua [áɣwa], algo [álɣo], averiguar [aβeriɣwár]

그러나 이러한 마찰음화 현상은 단지 모음이나 유음 등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음절 말에 쓰인 파열음의 내파작용이 약해지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즉 음절 말 폐쇄음/ -p, -b, -t, -d, -k, -g/이 그 뒤에 유음이 아닌 다른 자음들과 결합될 때에는 그 성질이 약화되면서 마찰음화를 거쳐 음가를 상실하는 경우가 생긴다.

/B, D, G/ → [p, t, k]/_____ \$

apto, ábside, abs_loluto, act_or, at_mósfera.

IV. 발음 실태 조사 및 오류 분석

A.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발음실태를 학습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거기서 발견된 오류 내용을 분석코자 한다.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 본교 스페인어 전공 학생들 중 초보자인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 학생들 중 비교적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전체 학생들의 성별 분포 비율을 고려하고 또한 해외연수 여부도 감안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텍스트는 독해에 별 어려움이 없는 일반 설명문과 대화문의 두 가지로 채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 텍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발음 실태를 digital 방식으로 녹음, 분석하였는데, 음향음성학적인 방법은 비록 시각적으로는 뚜렷하게 발음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조음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본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교수를 통해 청각음성학적인 방법으로 발음 현상을 분석하고 또 그 조음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애초에는 텍스트 전반에 걸쳐 모든 분절음 및 초분절음 요소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나, 지면이 한정될 뿐만 아니라 조사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많아 결국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내용 중 대표적인 것 또는 특히 주목할 만한 것들만을 발췌해 집중 분석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 도입된 텍스트 두 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ext 1*₁₆₎

En *E*spaña hay muchas fiestas durante *e*l año. En Valencia, el
 diecinueve *d*e marzo, *d*ía de San José, *s*e celebran las Fallas.
 Entre el quince *y* el diecinueve *d*e marzo ponen unos grandes
 monumentos de madera en las calles. *Y* en el último *d*ía de las
 Fallas por la noche queman todos los monumentos.

En *e*l mes *d*e julio empiezan las fiestas de San Fermín.
 Las fiestas de San Fermín se celebran en Pamplona, en el norte
 de España. Todos los días durante una semana hay corridas de
 toros. Por la mañana del siete de julio los toros corren por las
 calles de la ciudad y la gente corre delante de ellos desde la
 Plaza Mayor hasta la plaza de toros.

La noche del treinta y uno de diciembre, la noche de fin
 de año, se llama Nochevieja. En ese día cuando suenan las doce
 campanadas la gente toma doce *b*uvas, una *b*evida cada campanada.
 Dicen que la persona que las come va a tener un año de suerte.

- ※ ① [ə], ② [f], ③ [x], ④ [s], ⑤ [l], ⑥ [r], ⑦ [r̄],
 A = V+V iguales
 B = V+V diferentes
 C = C+V
 D = /n/ 자음동화

16) 박철, 이경희(2003), 『El Español II』, 서울: 진명출판사. p.26.

Text 217)

Había llegado el día de la final. Durante el desayuno el tío *le*
 dijo a Miguel: - No pienses en el abuelito. Piensa en el partido.

Antes de que salieran de la casa, la abuelita llamó a David y
 le susurró: - Toma esto.

Le dio a David una de las medallas del abuelo y unos dulces.

- Quizá vaya al partido - le dijo.
 - Sí - respondió David y se guardó la medalla y los dulces en el bolsillo.

David se sentó en el banco y miró el inicio del partido. El
 público vitoreaba.

Los dos equipos estaban nerviosos. Un jugador de Las Águilas
 se lastimó la rodilla. Ya no podía seguir jugando. Se sentó junto a David.

El partido continuó. Los Tiburones eran muy rápidos! Marcaron dos goles.

Luego ocurrió otro accidente. Otro Águila se lastimó, se
 dislocó el hombro, y lo sacaron de la cancha.

El tío de David estaba preocupado. En el descanso de medio
 tiempo dijo: - Si perdemos otro jugador *tendremos que abandonar*.
 No seríamos suficientes para acabar el partido.

- ※ ① [ə], ② [f], ③ [x], ④ [s], ⑤ [l], ⑥ [r], ⑦ [r̄]
 A V+V iguales B V+V diferentes C C+V
 D /n/ 자음동화 E C+C iguales

17) 박철, 이경희(2003), 『El Español II』, 서울: 진명출판사. p.26.

B. 발음실태 조사 결과

1. 분절음의 오류

학생들의 분절음에 대한 발음 실태 및 오류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8>과 <표9>와 같다.

<표8> 분절음의 오류 내용 1 (Text1)

음소 연번	[θ]	[f]	[x]	[s]	[l]	[r]	[r̄]	비고
1	x	○	○	x	○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r̄]→[r]	
2	x	○	○	x	x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권설음		[r̄]→[r]	
3	x	○	○	△	○	○	○	양호
	[θ]→[s]							
4	x	○	○	○	○	○	x	양호
	[θ]→[s]						[r̄]→[r]	
5	△	○	△	x	○	△	△	양호
				설단음, 동화 미숙				
6	△	○	○	x	x	○	x	양호
				동화 미숙	어두 진동음		[r̄]→[r]	
7	x	○	○	x	○	○	x	양호
	[θ]→[s]			설단음			[r̄]→[r]	
8	○	○	○	○	○	△	x	우수
							[r̄]→[r]	
9	x	○	△	x	○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r̄]→[r]	
10	x	○	x	x	○	△	○	보통
	[θ]→[s]		기식음화	동화 미숙				

11	x	○	○	○	○	○	△	양호
	[θ]→[s]							
12	x	○	△	x	x	x	x	보통
	[θ]→[s]			동화 미숙	어두 진동음		[r̄]→[r]	
13	x	○	x	○	x	○	x	보통
	[θ]→[s]		기식음화		어두 진동음		[r̄]→[r]	
14	○	○	x	x	○	○	x	양호
			기식음화	동화 미숙			[r̄]→[r]	
15	x	○	○	x	○	○	x	양호
	[θ]→[s]			동화 미숙			[r̄]→[r]	
16	x	○	x	x	○	○	x	보통
	[θ]→[s]		기식음화	설단음, 동화 미숙			[r̄]→[r]	
17	○	○	x	x	○	○	x	양호
			기식음화	설단음, 동화 미숙			[r̄]→[r]	
18	x	○	○	x	○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r̄]→[r]	
19	x	○	△	x	x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권설음		[r̄]→[r]	
20	x	○	x	x	○	○	x	보통
	[θ]→[s]		기식음화	설단음, 동화 미숙			[r̄]→[r]	

<표9> 분절음 오류 내용 2 (Text2)

연번	음소							
	[θ]	[f]	[x]	[s]	[l]	[r]	[r̄]	비고
1	x	○	○	x	○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r̄]→[r]	
2	x	○	○	x	x	△	x	보통
	[θ]→[s]			설단음, 동화 미숙	어두 진동음		[r̄]→[r]	
3	x	○	○	△	○	○	○	양호
	[θ]→[s]							
4	x	○	○	○	○	○	x	양호
	[θ]→[s]						[r̄]→[r]	

5	△	○	△	<i>x</i>	○	△	△	양호
				설단음, 동화 미숙				
6	△	○	○	<i>x</i>	<i>x</i>	○	×	양호
				동화 미숙	어두 진동음		[r̄]→[r]	
7	×	○	○	<i>x</i>	○	○	×	양호
	[e]→[s]			설단음			[r̄]→[r]	
8	○	○	○	○	○	△	×	우수
							[r̄]→[r]	
9	×	○	△	<i>x</i>	○	○	×	보통
	[e]→[s]			설단음, 동화 미숙			[r̄]→[r]	
10	×	○	×	<i>x</i>	○	△	○	보통
	[e]→[s]		기식음화	동화 미숙				
11	×	○	○	○	○	○	△	양호
	[e]→[s]							
12	×	○	△	<i>x</i>	<i>x</i>	×	×	보통
	[e]→[s]			동화 미숙	어두 진동음		[r̄]→[r]	
13	×	○	×	○	<i>x</i>	○	×	보통
	[e]→[s]		기식음화		어두 진동음		[r̄]→[r]	
14	○	○	×	<i>x</i>	○	○	×	양호
			기식음화	동화 미숙			[r̄]→[r]	
15	×	○	○	<i>x</i>	○	○	×	양호
	[e]→[s]			동화 미숙			[r̄]→[r]	
16	×	○	×	<i>x</i>	○	○	×	보통
	[e]→[s]		기식음화	설단음, 동화 미숙			[r̄]→[r]	
17	○	○	×	<i>x</i>	○	○	×	양호
			기식음화	설단음, 동화 미숙			[r̄]→[r]	
18	×	○	○	<i>x</i>	○	△	×	보통
	[e]→[s]			설단음, 동화 미숙			[r̄]→[r]	
19	×	○	△	<i>x</i>	<i>x</i>	○	×	보통
	[e]→[s]			설단음, 동화 미숙	어두 진동음		[r̄]→[r]	
20	×	○	×	<i>x</i>	○	○	×	보통
	[e]→[s]		기식음화	설단음, 동화 미숙			[r̄]→[r]	

이상 <표8>과 <표9>에서 본 바와 같이 학생들은 음소/θ/와 /x/에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생리구조상 어려움이 당연히 예상되는 [r]의 경우는 단연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각 음소에 대한 오류율을 보면 다음의 <표10>, <표11>과 같다.

<표10> 오류율(Text 1)

분절음	오류율(%)
[θ]	75
[f]	0
[x]	30
[s]	75
[l]	25
[r]	5
[r̄]	80

<표11> 오류율(Text 2)

분절음	오류율(%)
[θ]	80
[f]	0
[x]	35
[s]	75
[l]	25
[r]	30
[r̄]	100

여기서 보듯이 한국인 학생들은 한국어에는 없거나 매우 드문 소리, 즉 [θ], [x], [r̄]의 경우에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f]의 경우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아마도 영어에서 익숙하게 훈련된 결과로 보인다. [θ]의 경우는 [s]로 발음을 대체하는, 즉 seseo의 경향이 지배적이다. seseo현상은 스페인 남부지방과 중남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본 논문이 반도 스페인어를 표준어로 삼고 있는 이상 오류로 판정할 수밖에 없다. [x]의 경우는 오류의 대부분이 기식음화, 즉 영어의 [h]나 한국어의[ㅎ]으로 발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x]가 연구개 마찰음, 즉 혀의

뒷부분이 입천장에 거의 닿아 나는 소리임을 강조하고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s]의 경우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를 훨씬 넘는 오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s]가 혀끝을 치경에 대듯이 하며 내는 소리, 즉 설측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소리 뒤에 유성자음이 올 경우 유성음[s]으로 동화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잊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한국인 학생들은 [s]를 한국어의 'ㅅ'과 같은 소리를 내는 현상 그리고 그 뒤에 [i]모음이 있을 때 구개음화하며 [ʃ]에 가까운 소리를 내는 현상도 보인다.

설측음[l]의 경우 일부는 권설음으로 발음하여 영어의 'l'발음이 전이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 일부는 어두에서 [r]와 같이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우리말에서 'ㄹ'이 음운적으로는 진동음으로 분류되나 음맥에 따라 변이음(설측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올라와, 안 할래, 아들, 딸 등),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초분절음의 오류

초분절음은 어휘 내에 국한한 음절 및 강세로부터 시작하여 어휘를 초월한 구문상의 강세 및 연음 등이 있다. 여기서는 어휘 강세를 기준으로 그 오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a. 강세 오류 내용

앞에서 제시된 텍스트 두 가지를 통해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보인 강세 오류 현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2> 강세 오류 내용

연 번	오 류 내 용	비 고
1	miró→míro, Águilas→Aguílas, continuó→contínuo, lastimó→lastímo, seríamos→seriamós, ocurrió→ocurrío	
2	dio→díó, lastimó→lastímo, rápido→rapído	
3	dislocó→dislóco	
4	dio→díó, Quizá→Quíza, lastimó→lastímo	
5	celebran → celebrán, último → último lastimó→lastímo	
6	lastimó→lastímo	
7		
8	dio→díó	
9	dio→díó, respondió→respondío, inicio→inició, Águila→Aguíla	
10	Águilas→Aguílas, Águila→Aguíla, lastimó→lastímo	

11		
12	miró→miró, continuó→contínuo, lastimó→lastímo	
13	José → Jóse, campanadas → campandás inicio→inicio, rápidos→rapidós, continuó→contínuo	
14	jugador→jugáador, lastimó→lastímo	
15	abuelito→abuélito, abuelita→abuélita, inicio→inicio, dio→díó Águilas→Aguílas, continuó→contínuo, rápidos→rápidos, lastimó→lastímo, Águila→Aguíla	
16		
17	abandonar→abandónar	
18	miró→miró, rápidos→rapidós, Águilas→Aguílas, ocurrió→ocurrío, Águila→Aguíla	
19	calles → callés	
20	lastimó→lastímo, miró→miró	

위의 <표12>에서 보는 것처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끝에서 세 번째(proparoxítono) 또는 그 이상의 음절에(superproparoxítono)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로서 스페인어에서 그 빈도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것은 동사변화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hablábamos, habláramos, hablásemos, Dímelo, Dígamelo, diciéndolo, diciéndomelo). 하지만 término, indígena처럼 명사, 형용사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드문 것은 oxítono, 즉 끝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이다.

스페인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강세 유형은 당연히 paroxítono 즉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다. 그것은 아마도 거의 모든 언어에서 평서문은 끝이 약간 상승하고 하강하는 음조를 갖는 현상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은 oxítono와 proparoxítono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paroxítono로 변화시켜 발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b. 연음의 오류

연음(sinalefa)이란 일정한 단위의 문장 성분들이 한꺼번에 발음되는 어느 말토막 속에서 각 성분의 경계를 허물고 이어 발음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 주어진 텍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발화를 녹음 분석한 결과 연음의 오류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13> 연음의 오류 1 (Text 1)

연쇄구조 연번	V+V iguales	V+V	C+V	자음동화 /n/	비고
1	3	3	3	3	
2	3	2	2	2	
3	2	1	2	3	
4	3	3	3	3	
5	1	1	1	1	
6	2	1	2	1	
7	3	3	3	3	
8	3	3	3	3	
9	1	1	1	1	
10	2	2	2	2	
11	3	2	3	3	
12	2	3	2	2	
13	1	3	2	2	
14	1	2	3	2	
15	2	1	2	1	
16	1	3	1	1	
17	1	1	1	1	
18	3	3	3	1	
19	3	3	2	2	
20	1	3	3	1	

<표14> 연음의 오류 2 (Text 2)

연쇄구조 연번	V+V iguales	V+V diferentes	C+V	C+C iguales	자음동화 /n/	비고
1	2	3	2	1	1	
2	1	2	1	1	1	
3	1	2	1	1	1	
4	2	2	2	2	2	
5	1	1	1	2	2	
6	1	2	1	1	2	
7	2	2	1	1	2	
8	3	3	3	3	3	
9	1	1	1	1	2	
10	1	2	1	2	2	
11	1	2	2	2	2	
12	2	3	1	2	1	
13	2	2	1	1	1	
14	2	1	2	1	2	
15	1	2	1	1	1	
16	1	2	1	1	1	
17	1	1	1	1	2	
18	2	2	1	3	2	
19	3	3	3	3	2	
20	1	2	1	1	2	

이상의 <표13>과 <표14>에서 숫자 1, 2, 3은 연음의 올바른 실현을 등급으로 표시한 것인데, 3은 정확히 실현한 것을 나타내는데 반해 1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나타내며, 2는 어중간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에서는 학생 개인별로 각 연쇄 유형의 정확도 혹은 오류 정도를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적이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에 대한 분석 및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의 <표15>와 <표16>에서 처럼 음의 연쇄 유형별로 나타나는 발음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15> 연쇄구조별 연음 오류 분석 1 (Text 1)

연쇄구분	연쇄구조	양호	오류	오류율 (%)
V + V iguales	durante el	10	10	50
	entre el	12	8	40
	de España	11	9	45
	de ellos	5	15	75
	va a tener	16	4	20
	y el	9	11	55
V + V diferentes	durante una	10	10	50
	treinta y uno	16	4	20
	de año	16	4	20
	doce uvas	11	9	45
	una en cada	17	3	15
	En España	17	3	15
C + V	Ponen unos	2	18	90
	en el último	0	20	100
	En el mes	19	1	5
	En el norte	20	0	0
	En ese	16	4	20
	un año	10	10	50

<표16> 연쇄구조별 연음 오류 분석 2 (Text 2)

연쇄구분	연쇄구조	양호	오류	오류율 (%)
V + V iguales	Durante el	10	10	50
	la abuelita	11	9	45
	vaya al partido	9	11	55
	ocurrió otro	6	14	70
	para acabar	0	20	100
V + V diferentes	llegado el	11	9	45
	dijo a	11	9	45
	llamó a	12	8	40
	Toma esto	15	5	25
	dio a	13	7	35
	y unos	9	11	55
	se sentó en	5	15	75
	miró el	4	16	80
	junto a	18	2	10
	otro accidente	12	8	40
	dislocó el	1	19	95
	tendremos que abandonar	3	17	85

연쇄구분	연쇄구조	양호	오류	오류율 (%)
C + V	No pienses en el abuelito	3	17	85
	Piensa en el partido	7	13	65
	dulces en el bolsillo	0	20	100
	dos equipos	13	7	35
	Las Águilas	0	20	100
	el hombro	10	10	50
	En el descanso	19	1	5
	Perdemos otro	0	20	100
C + C iguales	estaban nerviosos	7	13	65
	seríamos suficientes	3	17	85

<표17> 연쇄구조별 자음동화 오류 분석

자음동화	연쇄구조	양호	오류	오류율 (%)
/n/ + C (Text 1)	En[m] Valencia	7	13	65
	En[m] Pamplona	3	17	85
	San[m] Fermín	16	4	20
	San[n] José	3	17	85
	Dicen[n] que	9	11	55
	en[n] cada	9	11	55
/n/ + C (Text 2)	eran[m] muy	2	18	90
	Un[n] jugador	4	16	80

연음의 절대적 관건은 음의 연쇄 구조에 따른 음운현상을 파악하고 연습하는 것이다. 앞의 <표15>부터 <표17>까지에 이르는 연쇄 구조별 연음 오류 분석을 통해 보듯이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상태를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학생들이 연음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낱말 하나하나를 읽는데 급급함을 보이고 있다. 발음은 문장의 이해와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발음 상태를 통해 문장의 통사적, 의미적 이해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의 통사적, 의미적 이해는 바로 말토막 형성에 귀결된다고 하겠다.

우선 명사구의 경우 그 핵인 명사에 더불어 관사와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가 수반됨은 자명한 것이고 따라서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띄어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관사와 명사 혹은 명사와 형용사를 따로 분리하여 읽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관사에 강세를 주

어 읽기까지도 한다.

다음은 동사구의 경우이다. 동사는 단순동사 뿐만 아니라 복합동사도 있다. 예를 들어 'ha venido'처럼 조동사가 부가되어 복합시제를 형성하는가 하면, 'va a tener', 'tendremos que abandonar'처럼 perífrasis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성분들이 분리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한편 동사는 그와 관련된 목적어나 부사어를 병합한다. 그것은 수식 또는 열거의 관계로서 동사의 의미 완성에 필요한 부속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onen unos grandes monumentos de madera'라든지 'hay corridas de toros', Dicen que..., David se sentó en el banco' 등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부정문 구조에서 no등의 부정사들이 동사와 분리되지 않으며 또한 목적대명사(me, te, lo.....)가 동사의 바로 앞 또는 뒤에 붙여 쓰이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동사는 주어와 함께 묶인다. 앞에 보인 텍스트에서도 치 구문이 자주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En Valencia.....', se celebran las Falla'의 경우 주어인 las Fallas가 문장 끝에 온 것은 부사어가 앞에 놓인 때문이다. 이 경우 se celebran과 las Fallas, 이 두 성분은 당연히 묶일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전치사 등의 접어에 이끌리는 성분들이 또한 하나의 말토막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잇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durante el año'라든지 'en el último día de las Fallas por la noche', en el norte de España', 'para acabar el partido' 등이 그것이다.

학생들이 어느 부분에서 띄어 읽는가를 봄으로써 그 학생의 언어능력 또는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Piensa en el partido'의 경우를 보자. 만일 Piensa/ en el partido라 한다면 그 학생은 문법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아마도 Piensa가 pensar동사의 명령형이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모르게 그 부분에서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Piensa en/ el partido라 하였다면 그 학생도 역시 문법에 치우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pensar 동사 뒤에 놓인 전치사 en을 목적어를 도입하는 일반 전치사'a'와 구분하는데 몰입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Piensa en el/ partido라고 읽은 학생의 경우는 문법적 구조 파

악 보다는 의미 분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 경우는 문장의 초점(명사)을 찾는 데 몰두한 유형이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느끼고 명심해야 할 사항은 문법의 중요성이다. 하지만 문법은 문법자체의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된다. 문법은 말하기, 즉 발음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도구 과목들 역시 문법과 보완 관계에 있음은 물론이다. 예를 들어 언어실습과목을 단순히 듣고 이해하는 차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문법을 보완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도록 교수 내용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문법 연습단계의 일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동사 형태를 숙지하고 반복 연습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활한 구사를 도모한 후 그와 관련된 문장구조를 제시 한다. 그로써 비로소 분석적이 아닌 통합적 이해와 연습능력이 갖춰지게 되면, 낱말 차원의 발음에서 벗어나 음성구문론적 차원에서 원활하고 자연스런 구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법적 기능과 음운론적 기능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론에 더불어 충분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읽기와 말하기 능력이 비례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학습 영역에서 발음은 항상 강조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V. 결론

본 논문은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실태를 조사하여 거기서 나타나는 오류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발음실태를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또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음성학적 지식을 갖추는 것이 전제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앞부분에서 발음조사에 앞서 먼저 스페인어의 분절음과 초분절음에 대한 조음 음성학적 이론을 소개 설명하였다. 분절음은 크게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어지는 바, 각 모음과 각 자음의 조음현상을 한편으로는 조음방식과 조음위치 등 조음의 요령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스페인어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어인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언어인 영어를 스페인어의 음운 체계와 비교해 봄으로써, 스페인어 각 분절음의 보편성, 고유성, 특수성을 나름대로 구분해 보았다.

스페인어의 모음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 단모음의 음소의 경우 5개(a, e, i, o, u)에 불과하고 거기에다 청각적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일반 변이음 2개([ɛ, ɔ])를 합쳐야 겨우 7개가 되며, 이것은 곧 오늘날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로망스어의 모체라 할 수 있는 통속라틴어의 기본 모음음소 체계인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스페인어는 모음이 많이 분화 또는 발전하지 않고 본래 체계를 유지한, 즉 보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페인어 발음을 배우고 익히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어 및 인접 언어보다 단순한 구조이므로 보다 용이해짐은 물론이다. 단, 음성학적으로 음맥에 따라 실현되는 변이음, 그 중 대표적인 [e]와 [ɛ], 그리고 [o]와 [ɔ]를 식별하고 구사할 수 있도록 발음의 원리를 숙지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페인어의 자음은 한국어 및 영어와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질적으로는 몇 가지 중요한 상이점을 나타낸다. 우선 마찰음에서 스페인어는 유·무성의 대립이 없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영어와 두드

러진 차이점이다. 한국어의 경우는 마찰음이 3개([s, s', h])에 불과 하므로 그에 비교하여 스페인어 마찰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무튼 한국인 학습자들이 생소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마찰음은 /f, θ, x/이며, 그중 영어에도 없는 /x/는 매우 인상적이고도 어려운 발음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은 이것을 /h/(ㅎ)과 같은 소리로 인지하여 실제로 성문기식음(ㅎ)으로 발음하는 것을 흔히 보게 된다. 하지만 한국어의 변이음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어에도 [x]가 있음을 알 수 있다('흙'을 강하게 발음할 때 절로 나오는 연구개음). 따라서 /x/(무성연구개마찰음)이 가장 어려운 소리가 아니고 오히려/θ/(무성치간마찰음)이 가장 어려운 자음이 될 것이며, 실로 한국 학생들 중 C와 Z를 [θ]로 발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파열음의 경우, 스페인어는 6개(/p, b, t, d, k, g/)가 있는데, 반해, 한국어는 9개가 있다. 즉 한국어는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아니라 각 조음위치 별로 평음/경음/격음의 3가지로 대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국어에 경음이 있으므로 스페인어의 무성과열음을 발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어의 파열음 음소에는 유성음이 없어서, 즉 /b, d, ɣ/은 유성음이 아니고 무성음이기 때문에 /p, t, k/와 혼동할 수 있는 여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구[kagu]의 경우 앞의 'ㄱ'과 뒤의 'ㄱ'은 소리가 다른데, 앞소리는 무성음이고 뒷소리는 유성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이 스페인어의 /b, d, g/를 발음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은 물론 한국어에 유성음의 음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음맥에 따른 변이음(β, ð, γ,)을 익히고 연습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파열음이 주로 모음 사이에서 마찰음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것이다.

유음과 비음을 함께 공명음이라 한다. 공명음의 경우는 발음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국어의 비음에는 /ɱ, ɲ, ɳ/이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m, n, ɲ/와 비교해 보면 당연히 한국인들은 /ɲ/가 새로운 음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유음의 경우는 보다 민감해 진다. 즉 한국어는 /r/하나에 불과 하지만, 스페인어는/l, ʎ, r, r̄/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이

스페인어의 설측음과 진동음을 구분해서 발음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구강 구조상 /r/의 발음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는 개별적인 노력으로 극복할 일이다. 하지만 /l/와 /r/, 즉 설측음과 진동음을 구분하는 것은 체계적인 설명과 훈련으로 가능한 일일 것이다. 설측음은 혀를 치경에 대고 가운데 통로를 막은 채 공기를 혀의 가장자리로 내보내는 소리인데 반해, 진동음은 혀를 치경에 댔다가 떴면서 내는 소리, 즉 설탄음이다. 한국인들이 설측음과 진동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예로 'claro', 'libro'의 발음을 들 수 있는데 일부 학생들은 [kraro], [ribro]라고 발음한다. 그러나 'general'을 [xenerar]로 발음한다든지, 'hola'와 'hora'를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은 드물다. 따라서 우리는 어두의 설측음이나 2중자음의 설측음을 진동음으로 혼동하는 것에[대비하여 별도로 강조하고 연습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음 역시 /ʎ/가 낯선 음소로 인식될 수 있다. 유음인 /ʎ/와 비음인/n/가 치경음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도 모음/i/나 반자음/j/와 어울리면 스페인어의 그것과 비스한 소리가 될 수 있다.(올려, 알려, 열려, 안녕, 아뇨, 했냐 등) 따라서 그런 점에 주목하여 별도로 훈련하면 설측음의 연습에 대단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초분절음은 음절과 강세 그리고 말토막과 연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음절분해에 대해서는 익숙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스페인어의 강세 규칙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들은 스페인어 발음이 쉽다고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발음 실태를 조사해 보면 정확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강세 면에서 의외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한국어에 강세가 없기 때문에 그에 익숙하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끝에서 세 번째 또는 그 이상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다(hablábamos, habláramos, hablásemos, Dímelo, Dígamelo, diciéndolo, diciéndomelo). 여기서 보듯이 proparoxítono나 superproparoxítonos는 동사변화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하지만 término, indígena처럼 명사, 형용사 등 예도 많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어에서 가장 일반적인 강세 유형은 paroxítono 즉,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주어지는 경우이고, 그 다음은 oxítono, 즉 끝음절에 강세가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proparoxítono는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으며, 아마도 그런 이유로 학생들이 미숙하다고 설명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강세에 있어 학생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은 단지 어휘 강세만이 아니다. 오히려 문장 강세 면에서 더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학생들은 전치사, 접속사, 관사 등의 기능어에 강세를 주는 경향이 매우 짙다. 강세는 주로 명사, 형용사, 동사 등의 내용어에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스페인어 강세는 강도(intensidad)와 병행하여 음조(tono)와도 관련이 있다. 즉 강세음절은 힘주어 발음하기도 하지만 보다 올려 읽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 유난히 자주 발견되는 현상은 띄어 읽는 부분(pausa)에서 단어를 올려 읽음으로써 강세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억양의 원리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할지라도 어휘의 강세의 규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수자가 강세와 억양의 혼동을 예방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학생들은 문장을 읽을 때 어디까지 묶고 또 어디서 띄어 읽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심지어는 관사와 명사마저도 띄어 읽음으로써 매우 어색한 발음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절음의 정확한 발음도 중요하지만 구문의 자연스런 발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말토막(sirrema) 형성의 원칙을 익히고 그에 따른 연음을 연습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연음 시 당연히 음절의 경계가 수정되거나 또는 소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Los alumnos están con sus amigos를 읽을 경우, 각 단어별로 나누어 읽는다면 [los-alúm-nos-es-tán-kon-sus-a-mí-yos]이지만, 이어 읽는다면 [lo-sa-lúm-no-ses-taŋ-su-sa-mí-yos] 같이 된다.

이처럼 음절이 재구성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그 안의 분절음(모음과 자음)이 다른 변이음을 갖게 된다. 이는 한국인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교수자가 매우 세심하고도 끈기있게 지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더구나 음의 연쇄 구조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연음 학습은 음운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발음 지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상황이란 학습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 적

성, 태도, 그리고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모국어의 음운 현상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목표어에 대한 지식과 모국어의 음운 현상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소리 전반에 걸친 이론을 정리하는 동시에 국내 학습자들의 모국어인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그것과 비교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의 발음 실태를 조사하여 오류 현상을 분석한 바, 실수율이 높은 음운 현상에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함께 분석, 설명해 보았다. 본 논문이 발음 학습 현장에서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도모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 문헌

- 강옥미(2003), 『한국어음운론』, 서울: 태학사.
- 고경석(2002), 「의사소통활동중심의 영어 발음지도 수업 모형」, 『교육논총』, 19, 225-254.
- 고석주(2002), 「미국영어 발음변화 지도가 청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 김종남(1998), 「연음현상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논문집』, 32, 241-256.
- 구봉림(2002), 『영어음성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신아사.
- 김기섭, 임운(2002), 『음향 분석과 영어 발음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김득기(2001), 「영어 연음지도를 통한 듣기능력 향상 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김용(1997), 「서반아어 무성마찰음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김원필(1990), “서반아어의 올바른 발음교육을 위한 대조언어학적 분석”, 『교육연구』 90-1, 조선대학교 교육연구소, 157-182.
- _____ (1999), 「스페인어의 e-두음 첨가 현상」, 『서어서문연구』, 14, 37-60.
- _____ (2001), 「스페인어 자음의 발음 형성기술 연구」, 『서어서문연구』, 20, 3-24.
- _____ (2002a), 「Uruguay인가 아니면 Urúguay인가?」, 『현대문법연구』, 27, 179-196.
- _____ (2002b),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자음동화현상 대조」, 『서어서문연구』, 22, 17-35.
- _____ (2003),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강세오류현상」, 『서어서문연구』, 27, 471-491.
- _____ (2004), 「노래를 통한 스페인어 리듬 학습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 11, 265-283.
- _____ (2005),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의 음절 및 강세 구조 비교」, 『이탈리아어문학』, 16, 23-51.

- _____ (2005),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발음에 대한 지역적 특징 분석」, 『스페인어문학』, 36, 377-391.
- 김의순(2002), 「대화문에 나타난 영어 연음 현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김중훈(2001), 『영어음성음운교육론』,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형엽, 이현구(2005), 『영어학습자와 교사를 위한 영어 발음지도』, 서울: 경진문화사.
- 남은화(2003), 「영어 연음 현상의 이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박경자·강복남·장복명(1994), 『언어교수학』, 박영사.
- 박의재, 정양수(2004), 『새로운 영어 교수법』, 서울: 한신문화사.
- 박철, 이경희(2003), 『El Español II』, 서울: 진명출판사.
- 배두본(1990), 『영어교육학』, 한신문화사.
- 배주채(1996), 『국어 음운론 개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서경석(1999), 『서어학 개론』, 서울: 송산출판사.
- 서예진(2006), 「노래를 활용한 스페인어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심상완(2004), 「스페인어 청취 저해 요인 분석과 해결 방안」, 『서어서문연구』, 30, 379-398.
- 유혜배(2005), 「영어 연음에 관련된 음운현상 인지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 12(1), 273-293.
- 이만기(2006), 『스페인어학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이지훈(2002), 「연음 분석을 통한 영어발음 지도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호영(1999), 『국어음성학』, 서울: 태학사.
- 정동빈(1990), 『언어습득론』, 한신문화사.
- 정동빈외(1992), 『언어습득』, 언어와 응용언어학 IV, 한신문화사.
- 조민영(2005), 「중·고등학교 스페인어 교과서에 나타난 듣기 분석」,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전상범(2004), 『음운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_____ (2005), 『영어 음성학 개론』, 서울: 을유문화사.
- 조경호(2007), 『스페인어 언어학·문법사전』, 서울: 도서출판 문예림.
- 최영진(2007),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 다루기』, 서울: 한국문화사.
- 최현욱(1992), 『영어교육과 실제』, 한국문화사.
- 최재철(1997), 「스페인어 듣기에 관한 연구」, 『서어서문연구』, 10, 61-83
- _____ (1999), 「한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수법」, 『서어서문연구』, 14, 169-204.
- Abraham, Werner(1974), *Terminologie zur neueren linguistik*, (Diccionario de terminología lingüística actual), versión española de Francisco Meno Blanco, Madrid: Gredos.
- Alarcos Llorach, E. (1974). *Fonología española*. Madrid: Gredos.
- Ball, Rahilly(1999), *Phonetics The science of speec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Brown, H. Douglas(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Prentice-Hall.
- Catford, J. C(2001), *A practical introduction to Phonet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Inc.
- Comsky, Noam, Halle, Morris(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Diez, Miguel, Morales, Francisco, Sabin, Angel(1980), *Las lenguas de España*, Madrid: Instituto nacional de ciencias de la educación.
- Entwistle, William(), *The Spanish language together with Portuguese, Catalan and Basque*, London: Faber & Faber Ltd.
- Fisiak, Jacek(1985),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he languagetTeacher*, Pergamon Press.
- Gili Gaya, S. (1975). *Elementos de fonética general*. Madrid: Gredos.
- Goyvaerts, Didier L., Pullum, Geoffrey K.(1975), *Essays on the pattern of*

- English*, E. Story-Scientia Ghent, Belgium,
- Guitart, Jorge M., Roy, Joaquín(1980), *La estructura fónica de la lengua castellana*, Barcelona: Anagrama.
- Hala, Bohuslav(1973), *La sílaba*, Madrid: C.S.I.C.
- Harris, James(1969), *Spanish Phonology*, M.I.T.Press.
- Hockett, C. F. (1971). *Curso de lingüística moderna*. Buenos Aires: Editorial Universitaria de Buenos Aires.
- Katamba, Francis(1991), *An introduction to phonology*, Longman.
- Ladefoged, Peter, Maddieson, Ian(1996), *The Sounds of the world's languages*, Blackwell.
- Lado, Robert(1957), *Lingüística contrastiva -lenguas y culturas-*, Madrid: Alcalá.
- Lapesa, Rafael(1981),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Gredos.
- Larsen-Freeman, D.(1995), 『외국어 교육의 기술과 원리』, 조명원·선규수 공역, 한신문화사.
- Lausberg, Heinrich(1976). *Lingüística Románica -Fonética*. Tomo I. Madrid: Gredos.
- Lázaro Carreter, Fernando(1974), *Diccionario de términos filológicos*, Madrid: Gredos.
- Lee, Sub Young(1998), *Estudio contrastivo en el nivel fonológico del español y el coreano desde el punto de vista de la combinatoria de fonemas* Tesis doctoral,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_____ (1999), "Relaciones entre Fonemas y Grafemas del Coreano y Español", 『서어서문연구』 15, 167-192.
- Lee, Han Chul(1993), *Estudio contrastivo de los niveles fonético y fonológico de español y coreano: fonemas y alófonos*, Tesis doctoral,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 Martinet, Jeanne(1975), *De la teoría lingüística a la enseñanza de la lengua*, Madrid: Gredos.

- Martínez Armador, Emilio M.(1985) *Diccionario gramatical y de dudas del idioma*, Barcelona: Editorial Ramón Sopena.
- Navarro Tomás, T.(1974), *Manual de pronunciación española*, Madrid: C.S.I.C.,
- Nehls, Dietrich(1979), *Studies in contrastive linguistics and error analysis*, I. the Theoretical Background, Heidelberg: Julius Groos Verlag.
- Nebrija, Antonio de(1977), *Reglas de orthographía en la lengua castellana*, Estudio y edición de Antonio Quilis, Bogotá: Caro y Cuervo.
- Pidal, Ramón(1973), *Manual de Gramática Históric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Quilis, Antonio, &. Fernández, Joseph A(1973),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s para estudiantes angloamericanos*, Madrid, C.S.I.C.,
- _____ (1975). *Curso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s*. Madrid: C.S.I.C.
- _____, Hernández, César(1975), *Curso de lengua española*, 2a ed., Valladolid: Industrial Litográfica.
- _____, Esgueva, Manuel, et al.(1999), *Lengua española*, Curso de acceso, Madrid: Editorial Centro de Estudios Ramón Areces.
- Real Academia Española(198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_____ (1984), *Diccionario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 _____ (1999), *Ortografía de la lengua española*, revisada por las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 Rosenblat, Angel(1974), *Actuales normas ortográficas y prosódicas de la Real Academia Española*, Madrid: O.E.I.
- Spencer, Andrew(1996), *Phonology*(음운론), 강경란역, 서울: 한신문화사.
- Seco, Rafael(1975): *Manual de gramática española*, Madrid: Aguilar.
- Torres, Ramón E.(1971), *Didác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dición Alcalá.

〈부록〉

1. 조사대상자 신상정보

번호	이름	학년	성별	해외연수여부	비고
1	강대건	4	남	○	스페인 2개월 연수
2	김경민	3	남	×	
3	김모은	4	여	○	스페인 6개월 연수
4	김보라	3	여	×	
5	김하나	2	여	○	스페인 2개월 연수
6	문봄	3	남	○	스페인 1년 연수
7	박경미	3	여	○	과테말라 6년 거주
8	박도란	4	여	○	스페인 2개월 연수
9	박신혜	3	여	○	스페인 1년 연수
10	박지혜	3	여	×	
11	박초롱	3	여	○	스페인 2년 연수
12	백수진	4	여	○	스페인 10개월 연수
13	손효주	4	여	○	스페인 2개월 연수
14	송상의	4	여	○	스페인 2개월 연수
15	안정빈	2	남	×	
16	윤희선	4	남	○	멕시코 1년 연수
17	이유리	2	여	○	스페인 2개월 연수
18	이진선	2	여	×	
19	임민지	3	여	×	
20	조아라	4	여	○	스페인 1년 연수

2. 발음 분석 *Text 1*

En España hay muchas fiestas durante el año. En Valencia, el diecinueve de marzo, día de San José, se celebran las Fallas. Entre el quince y el diecinueve de marzo ponen unos grandes monumentos de madera en las calles. Y en el último día de las Fallas por la noche queman todos los monumentos.

En el mes de julio empiezan las fiestas de San Fermín. Las fiestas de San Fermín se celebran en Pamplona, en el norte de España. Todos los días durante una semana hay corridas de toros. Por la mañana del siete de julio los toros corren por las calles de la ciudad y la gente corre delante de ellos desde la Plaza Mayor hasta la plaza de toros.

La noche del treinta y uno de diciembre, la noche de fin de año, se llama Nochevieja. En ese día cuando suenan las doce campanadas la gente toma doce uvas, una en cada campanada. Dicen que la persona que las come va a tener un año de suerte.

3. 발음 분석 *Text 2*

Había llegado el día de la final. Durante el desayuno el tío le dijo a Miguel: - No pienses en el abuelito. Piensa en el partido.

Antes de que salieran de la casa, la abuelita llamó a David y le susurró: - Toma esto.

Le dio a David una de las medallas del abuelo y unos dulces. - Quizá vaya al partido - le dijo.

- Sí - respondió David y se guardó la medalla y los dulces en el bolsillo.

David se sentó en el banco y miró el inicio del partido. El público vitoreaba.

Los dos equipos estaban nerviosos. Un jugador de Las Águilas se lastimó la rodilla. Ya no podía seguir jugando. Se sentó junto a David.

El partido continuó. Los Tiburones eran muy rápidos! Marcaron dos goles.

Luego ocurrió otro accidente. Otro Águila se lastimó, se dislocó el hombro, y lo sacaron de la cancha.

El tío de David estaba preocupado. En el descanso de medio tiempo dijo: - Si perdemos otro jugador tendremos que abandonar. No seríamos suficientes para acabar el partido.